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 63

2023

통권 31권 82호

〈권두 설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백운영 담임목사
〈Cover Story〉 영생 복음의 재점화
〈선교 & 영생〉 복음의 향해
〈특집〉 일꾼을 세우다

창립 42주년 특대호

영생
Eternal Life





안수의 의미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행 6:6)

10월 22일 피택 장로와 안수집사들이 안수를 받고 주의 일꾼으로 거듭날 것임을 고백했다. 백운영 담임목사를 비롯한 이용걸 원로목사, 정승환 차기 담임목사, 시무장로 등은 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을 충심으로 섬기고 신앙이나 삶에서 성도들의 본이 될 것을 기도했다.

“항상 겸손하게 종의 직분을 감당하겠다.”(김한보 장로)

“지금까지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장인순 장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겠다.”(장인하 장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온전한 뜻을 잘 분별하는 청지기가 되겠다.”(허만혁 장로)

“주님이 주신 직분이라 믿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겸손히 전진하겠다.”(이철수 안수집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로 살겠다.”(백훈석 안수집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주의 나라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 봉사하겠다.”(채영중 안수집사)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통한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겠다.”(김재윤 안수집사)

안수 받은 이들의 일성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빛을 발하기를 온 성도들은 기도한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 6:3)

백운영 담임목사

2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긴 터널을 이제 서서히 빠져나오면서 드디어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지난 3년 반 동안 우리를 괴롭힌 ‘코비드 19’라고 불리는 질병은 아직도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가왔던 질병의 특성은 이제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던 감기 수준으로 격하되었고 백신 또한 변이 바이러스도 이겨내도록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간의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나요? 팬데믹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많은 유익을 얻었다는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고 정기적인 가정 예배가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절함이 이제는 매일의 습관으로 자리 잡혔다고 간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같은 팬데믹을 거치

면서 상황을 귀한 유익으로 삼게 되신 분들은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내성이 자리 잡힌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나면 더 단단해지고 미래에 어떤 일들이 생기더라도 이겨낼 수 있도록 자신감이 생겨납니다.

2023년 우리의 표어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 6:3)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우상 숭배에 빠져 들어갔고 세상의 좋은 것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암 8:11)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틀에 넣고 그냥 추측했고 자신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더 끈끈한 사랑과 교제의 관계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개인적인 창구를 열어놓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골방을 만들고 하루 시작의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시간으로 사용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호와의 마음을 알게 되고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영생장로교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성숙하고 아는 만큼 순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개인적인 창구를 열어놓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골방을 만들고 하루 시작의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시간으로 사용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호와의 마음을 알게 되고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영생장로교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성숙하고 아는 만큼 순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영생장로교회는 더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더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마다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시**





ON THE COVER



표지 설명: 손을 맞잡은 백운영 2대 목사, 정승환 3대 목사, 이용걸 1대 목사(왼쪽부터)
표지 촬영: 윤명수 집사

영생 · 통권 31권 82호
발행일 · 2023년 11월 19일
발행인 · 백운영 담임목사
편집인 · 류 웅 장로
편집위원 · 윤명수 집사, 김희정 집사
편집 · 디자인 | LEADER Communications

권두 설교

2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 6:3 백운영 담임목사

Cover Story_ 영생 복음의 재점화

8 담임목사 위임 및 선교사 재파송 예배 '다시 복음을 향해'
10 위임 & 재파송 예배 이모저모 복음을 보리라
20 정승환 3대 담임목사 인터뷰 주신 자들과 동행하는 목회
25 3대 담임목사 청빙 일지
26 신임 담임목사 목회 청사진 복음의 가치 높이 드는 교회 소망
정승환 담임목사 · 3대
28 신임 담임목사에게 바란다 목사님, 새로운 시작이 기대돼요!
30 백운영 2대 담임목사 인터뷰 다시 선교사로...

신앙 가이드

34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 경위로 목사 · 청년부 담당

선교 & 영생

36 복음의 향해 김경희 집사
38 선교 간증 치아파스에 내린 은혜의 단비 우정화 집사
40 예수 사랑 전하는 축복된 삶 신정혜 집사
42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 천승재 집사

특집_ 일꾼을 세우다

46 임직식 새로 일꾼을 세우다
54 임직 답사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 박형선 장로
56 신임 직분자 프로필 오직예수
66 임직 간증 섬김의 자리, 신앙의 자리로 구자선 집사
68 모든 것이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나니 이미영 권사
70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김한보 장로

전도회별 찬양축제

72 '그크신 하나님의 사랑'



81 신앙 간증 일본일초라도 쓰이는 마른 막대기 박종덕 집사
82 SNS로 전하는 주님의 향기 김경희 집사
84 다시 만난 하나님 조나단 성도
86 주님 향한 사랑 ♥ 복음 듣는 마음 박상희 집사
88 성경, 달고 오묘한 말씀 최차경 집사
90 믿는 자의 천국 소망 이현주 권사

92 신앙 단상 담대하라 Tharseo 주영돈 장로
94 끝이 좋은 사람들의 끝없는 선행 최유섭 장로

PEOPLE & GROUP

97 영생핸드벨 · 차임 콰이어 '솔리스트 앙상블' 의 하모니

핫플레이스_ 영생도서관

99 성령이 머무는 핫플레이스, 영생도서관

부서장에게 듣는다

102 영생장학회 문희준 위원장 영생장학회, 미래 지도자 양성의 산실

ISSUE 플러스+

105 남성 중창팀, 찬양의 깊이를 더하다
106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루스 크리스투스...오직 그리스도
108 무명팀 무명팀...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겠다

110 이용걸 원로목사 사역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주일학교

114 청년부 간증 한결같은 하나님 사랑 전우성 형제
116 청년부 간증 예수 사랑 나누는 '예사초' 윤예린 자매
118 한여중·고등부 하이씨(Hi-C) 주님의 말씀이 있는 시간 '하이씨' 이충현 형제



Cover Story

영생 복음의 재점화

영생장로교회가 정승환 목사를 3대 담임목사로 세우고 다시 한 번 복음의 기치를 높이 올렸다. 영생장로교회는 11월 19일 교회 창립 42주년을 맞아 담임목사 위임예배 및 선교사 재파송 예배를 갖고 정 목사를 3대 담임목사로 위임했다. 2016년부터 7년간 봉직했던 백운영 2대 담임목사는 다시 선교사로 파송 받았다.

‘다시 복음을 향해’



‘다시 복음을 향해...’
 영생장로교회가 정승환 목사를 3대 담임목사로 세우고 다시 한 번 복음의 기치를 높이 올렸다.
 영생장로교회는 11월 19일 교회 창립 42주년을 맞아 담임목사 위임 예배 및 선교사 재파송 예배를 갖고 정 목사를 3대 담임목사로 위임했다. 2016년부터 7년간 봉직했던 백운영 2대 담임목사는 다시 선교사로 파송 받았다.
 먼저 열린 2부 담임목사 위임식에서 정 목사

는 위임 인사말을 통해 “20대는 퀸즈장로교회, 30대는 퀸즈한인교회에 바쳤다면 이제는 영생장로교회에 제 삶을 바치고 싶다”면서 “이용걸 원로목사님의 목회철학과 영적 DNA를 물려받아 말씀, 기도, 심방에 집중하여 목양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그는 “오늘 제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지만 이제부터 ‘저는 제가 아니다’며 “예수님이 하시던 대로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기겠다”고 강조했다.
 웨스트민스터신학교 등에서 목회 공부를 한 정 목사는 뉴욕의 퀸즈장로교회와 퀸즈한인교



회에서 부목사를 지낸 뒤 OPC에서 담임목사로 5년간 봉직했다.

이용걸 원로목사는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장로들과 의논해서 교회를 이끌어야 한다”면서 베드로 전서 5장 1-2절 말씀을 들어 이와 같이 실천할 것을 정 목사에게 권면했다. 이어 이 원로목사는 “목사와 짐을 함께 지고 매도 함께 맞는다는 동역자의 각오로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회복을 넘어 부흥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며 목사를 위해 대신 죽을 각오를 가져주기를 성도들에게 간곡히 당부했다.

나아갈 것”이라며 목사를 위해 대신 죽을 각오를 가져주기를 성도들에게 간곡히 당부했다.

이어 열린 3부 선교사 재파송 예배에서 백운영 선교사는 “1대 목사로부터 파송 받고 3대 목사로부터 재파송 받은 일만큼은 미주 이민교회 역사에서 저를 능가할 분이 없을 것”이라며 “처

음 파송 받을 때는 영어 등 모든 것을 갖춘 만큼 모든 일을 다해낼 것 같은 교만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는 만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불모의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열매를 맺어 예수모르는 사람들이 기뻐 찬양하는 모습을 어서 보고 싶다”며 “이 승리의 길에 영생장로교회 교인들과 함께 가기를 기도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6년간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를 무대로 선교사로 활약했던 백 목사는 영생장로교회에서 7년간의 목회를 뒤로 하고 다시 말레이시아로 건너가 선교사로서 후학 양성 등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게 된다.

이에 앞서 백운영 담임목사의 인도로 열린 1부 예배에서 김성국 KAPC 총회장(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은 ‘주님의 질문, 나의 대답은’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될 때 신앙에 진보가 있고 믿음의 깊이는 더해진다”고 설교했다.

한편 백운영 담임목사가 오랫동안 대표를 지냈던 GP선교회 배선호 대표가 다시 선교사로 헌신키로 한 백 목사에게 파송장을 수여했다.

복음을 보리라



호 GP선교회 대표 등이 설교와 기도, 축사의 순서를 각각 맡았다.

이날 예배의 백미는 단연 위임식이었다. 담임 목사로서의 사명과 성도의 역할을 담은 서약, 위임기도에 이어 사회를 맡은 노회 위임국장 김성철 목사가 “내가 교회 머리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의 권위로 정승환 씨를 영생

장로교회 목사로 위임됨을 공포한다”고 선언하는 순간 3대로 이어지는 안정적인 리더십 교체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때문인지 분위기는 클라이맥스에 다다랐다.

특히 위임기도를 맡은 이용걸 원로목사와 백운영 담임목사는 정승환 목사 부부의 머리에 손을 얹고 6명의 성경 속의 인물들 거명해 눈길을

“

담임목사로서의 사명과 성도의 역할을 담은 서약, 위임기도에 이어 사회를 맡은 노회 위임국장 김성철 목사가 “내가 교회 머리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의 권위로 정승환 씨를 영생장로교회 목사로 위임됨을 공포한다”고 선언하는 순간 3대로 이어지는 안정적인 리더십 교체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때문인지 분위기는 클라이맥스에 다다랐다.

”

11 월 19일 엄수된 담임목사 위임예배 및 선교사 재파송 예배는 대형교회로는 드물게 40대 젊은 목사를 새로운 영적 리더로 세우는 데다 이민교회 역사상 ‘초유’의 ‘동일 선교사 재파송’이란 타이틀이 달려있는 영적 이벤트 때문인지 성도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날 예배에는 신임 정승환 담임목사가 영적 스승으로 섬기는 KAPC 총회장이자 퀸즈장로교회 담임으로 있는 김성국 목사를 비롯해 동부시찰장인 이병은 목사, 노회 서기인 이성흠 목사, 박성일 기쁨의 교회 목사, 양춘길 필그림선교회 목사, 김대영 위싱턴 헬로십교회 목사, 배선





“ 정 목사와 함께 공부했다는 이성흠 시온장로교회 목사는 “옆에서 지켜본 정 목사에게는 성실함과 열정이 있다”면서 “이를 볼 때 성실한 목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물씬 뿜어낼 것”이라고 격려했다.

끝났다.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력, 바울의 뜨거운 전도 열정과 복음 사역, 한나의 기도 능력, 마리아의 주님 사랑,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 이다’ 라는 일사 각오, 다니엘의 지혜 등을 나열하며 정 목사 부부가 이러한 목회 정신으로 무장해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기도했다. 하나님의 제단에 무릎 꿇은 정 목사 부부는 1, 2대 담임목사의 인수기도를 받을 때 만감이 교차하는 듯 눈물을 흘치기도 했다.

정 목사와 함께 공부했다는 이성흠 시온장로교회 목사는 “옆에서 지켜본 정 목사에게는 성실함과 열정이 있다”면서 “이를 볼 때 성실한 목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물씬 뿜어낼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열린 3부 선교사 재파송 예배에서는 영





생장로교회 담임목사의 직분을 내려놓고 다시 선교사로 떠나는 백운영 선교사에 대한 덕담과 격려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포문은 박성일 기쁨의 교회 목사가 열었다. 그는 “7년의 목회가 짧다면 짧지만 죽기보다 힘

들다는 2대 목사로 7년 목회를 완주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며 “무엇보다 퇴임이 아니라 선교사로 재파송 된다는 점에서 거듭 축하한다”고 말했다. 그는 백 선교사는 1.5세로서 목사와 선교사의 길을 달려온 이 분야의 파이오니아였다



“선교사로 동역하기도 했던 김대영 워싱턴 헬로십교회 목사도 “난이도로 따지면 선교사, 한국 목회, 이민 목회 순으로 쉽다”고 운을 떼며 “가장 어려운 이민 목회의 짐을 벗고 가장 쉬운 선교사의 길을 떠나는 백 목사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며 “나도 목회 마치면 선교사의 길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

”

고 치하였다. 양춘길 필그림선교교회 목사도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교수로서 힘껏 달려온 백 목사가 선교사로 재파송 된다는 사실이 부럽다”면서 “귀한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한 영생장로교회 교인들이 백 목사가 믿음의 길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선교사로 동역하기도 했던 김대영 워싱턴 헬로십교회 목사도 “난이도로 따지면 선교사, 한국 목회, 이민 목회 순으로 쉽다”고 운을 떼며 “가장 어려운 이민 목회의 짐을 벗고 가장 쉬운 선교사의 길을 떠나는 백 목사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며 “나도 목회 마치면 선교사의 길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운 영생선교교회 목사는 “우선 선교사가 된 것을 축하한다”면서 “그는 늘 선교지에 대한 추억을 떠올려 선교지를 향한



그리움이 있는 듯 했는데 마음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이 참 행복"이라면서 눈물로 씨 뿌리고 기쁨으로 거두는 백 선교사의 향후 행보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백 선교사로부터 선교사 훈련을 받았다는 배선호 GP선교회 대표도 “선교가 삶이고 삶이 선교’라고 누누이 말해왔던 백 선교사가 인생 후반기에 사역이 녹록치 않겠지만 잃어버린 영혼 구하는 일에 열정적으로 나설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격려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배 대표로부터 선교사 파송장을 받은 백 선교사는 16년 전에는 거꾸로 배 대표에게 선교사 파송장을 수여했던 적이 있다.

“

백 선교사로부터 선교사 훈련을 받았다는 배선호 GP선교회 대표도 “선교가 삶이고 삶이 선교’라고 누누이 말해왔던 백 선교사가 인생 후반기에 사역이 녹록치 않겠지만 잃어버린 영혼 구하는 일에 열정적으로 나설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격려했다.

”



“

“무엇보다 한 때 주저했던 아내(박영은 사모)가 동역의 길로 나서기로 결심해 준 것이 못내 기뻐다”는 그는 “선교사로 나서는 길이가슴 설레고 심장이 뛰다”고 말했다.

”

백 선교사는 답사를 통해 선교사의 길이 하나 남게서 부여한 천직임을 밝혔다. 1979년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강연을 듣고 하나님께 ‘선교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기도했다는 그는 44년 전에 선교사로서의 꿈을 키웠고 33년 전에 처음 선교사로 파송 받았으며 이제 다시 선교사의 길을 내딛으려는 찰나에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한 때 주저했던 아내(박영은 사모)가 동역의 길로 나서기로 결심해 준 것이 못





내 기뻐다”는 그는 “선교사로 나서는 길이 가슴 설레고 심장이 뛰다”고 말했다.

답사를 마친 백 선교사는 바통 터지한 정승환 신임 담임목사에게 위임패를 수여하는 것으로

7년 간의 담임목사로서의 마지막 미션을 수행했다. 서로 얼싸안으며 이별의 아쉬움을 달래던

사이 정 목사가 “말세에 오직 백 선교사만이 세계 한인 선교사와 선교사 자녀(MK)들을 연결,

놀라운 선교의 기운이 널리 퍼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했던 말이 메아리치는 듯 했다.

이날 목사 위임을 받고 선교사 파송을 받은 정승환 목사와 백운영 선교사를 위한 특송도 이어

졌다. 정 목사가 한 때 부목사로 시무했던 퀸즈장로교회 글로리아 싱어즈, 영생장로교회 여성중창

단, 필라지역 목회자 일동이 특송으로 ‘보리밭’ 등을 불러 격려와 축하를 아끼지 않았다. 



주신 자들과 동행하는 목회



“말씀, 기도, 심방을 바탕으로 늘 성도들과 동행하는 목회를 펼쳐나가기로 소망합니다.”

3대 담임목사로 위임된 정승환 담임목사의 위임 소감은 심플했다. “아직 교회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포부를 밝히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는 그의 표정에서는 말이 앞서기 보다는 행동으로 목회에 임하겠다는 각오가 읽혀졌다.

그러면서 정 담임목사는 앞으로 사역 내내 붙잡고 가야 할 성경 구절을 제시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요 17:24) 여기에는 우리 모두 영적으로 환골탈태해서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자는 염원이 내포됐으며 이를 위해 그 역시 한 몸 바치겠다는 심정으로 풀이된다.

■ 정승환목사 프로필

- 학력
웨스트민스터신학교(M.Div., Th.M.)
리고니아신학교(D. Min.)
- 경력
퀸즈장로교회 교육전도사, 부목사
퀸즈한인교회 부목사
리포메이션장로교회(OPC) 담임목사

Q. 목회에 임하는 각오는?

A. ‘말씀, 기도, 심방’을 통해 성도들과 같은 비전을 세워나가기로 원합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는 한낱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입니다.(이는 이용걸 원로목사가 행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말씀, 기도, 심방은 이 원로목사가 목회하던 35년 내내 강조된 것이었다. 충만한 말씀과 기도는 성도들에게 영의 꿀을, 심방은 관심의 꿀을 먹이는 것이라고 했다.)

Q. 영생장로교회에 느낀 첫인상은 어땠나?

A. 마치 어머니 품에 안긴 것과 같은 푸근한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봉직했던 뉴욕의 퀸즈장로교회와 영적 DNA가 비슷하기 때문인지 전혀 낯설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외부에 있을 때는 영생장로교회가 노쇠해 간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곤 했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 전혀 그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의 표정이 밝고 영적 에너지가 넘친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미 최고 수준의 전도회별 찬양축제를 지켜보면서 영생장로교회의 저력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Q. 미국 교회에서 한인 교회인 영생장로교회로 방향을 튼 이유가 있나?

“성도로 출석하던 시절 지금은 원로가 된 성도들의 영적 활기가 남다르다는 인상이 어렴풋하긴 하지만 뇌리에 남아있는 것도 새로운 곳에서 신앙의 뜻을 세워보는 것도 보람된 일일 것이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A. 미국 교회에 있으면 성도들 사이에 뒷말도 없고 편하게 목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다녀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한인 교회는 이런 부지런함을 필요로 합니다. 게다가 저는 한국 영성을 아는 사람이고 신학 공부를 위해 처음 필라델피아에 와서 다닌 교회가 영생장로교회이기 때문에 향수와 추억이 있습니다. 성도로 출석하던 시절 지금은 원로가 된 성도들의 영적 활기가 남다르다는 인상이 어렴풋하긴 하지만 뇌리에 남아있는 것도 새로운 곳에서 신앙의 뜻을 세워보는 것도 보람된 일일 것이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Q. 앞으로의 교회 운영 방안은?

A. 당장 무슨 혁신적인 일을 해나가기 어렵습니다. 한 3년 정도는 새로운 일을 벌이기 보다는 기존에 해 오던 것을 잘 챙기면서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듯싶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청사진에 대해서는 밝힐 기회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

영적 카리스마를 발휘하기 보다는
조신하게 목회를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라면 소신입니다.

Q. 요즘 주일예배를 제외하고는 수요일예배, 금요일기도회 등 공예배가 성도들의 출석률이 떨어지는 등 느슨해진 느낌이다. 예전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A. 주일예배뿐만 아니라 수요일예배, 금요일기도회 모두 중요합니다. 성도라면 공예배에 참석해야 하고 교회는 이를 회복시키는 데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Q. 특별히 사모하는 성경 구절이 있나?

A.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요 17:24) 이 성경 구절에 마음을 두는 것은 앞으로 향해 나갈 사역 내내 붙들고 가고 싶은 구절이기 때문이다.

Q. 목회 스타일은?

A. 교회는 다양한 의견을 필요로 합니다. 신앙 연륜과 경험이 풍부한 당회원들이나 성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토의를 통해 결론이 도출되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20년간 목회 일선에 있으면서 성도들의 동의 없는 결정은 반드시 실패로 귀결되는 것을 수없이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적 카리스마를 발휘하기 보다는 조신하게 목회를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라면 소신입니다.

Q. 성도들이 설교 말씀을 갈급해 하고 있다. 설교 말씀은 어떻게 준비하나?

A. 아무래도 목회의 핵심은 설교일 것입니다. 일단은 다른 무엇보다 설교 준비에 주력하겠습니다. 지난 42년간 강대상을 통해 생명을 공급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도 은혜 충만한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영의 꼴을 풍성히 먹이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며 배운 대로 하나님 말씀만 전하길 원하며 동시에 십자가 복음을 타협 없이 담대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Q. 최근 주일예배 강대상에서도 그렇고 섬김의 목회를 유독 강조하고 있다. 이유는?

A. 당회원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교역자



들과의 관계 등에서 섬김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진정한 섬김이 있을 때 화합이 있고, 협력이 있고, 상호존중이 있게 됩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는 '섬김'이라는 윤활유가 필요합니다.

Q. 설교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이용걸 원로목사'가 매개가 되는 일이 잦다. 특별한 인연이 있나?

A. 교단의 원로이고 신학 공부를 하던 새내기 때부터 존경했던 목사님입니다. 과거의 인연보다는 미래의 인연을 중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말씀, 기도, 심방에 진심이었던 이 원로목사님이 걸어온 길을 저도 따라갈 것입니다.(정 담임목사는 강대상에서 이 원로목사가 준 빨간 넥타이를 1년간 매겠다고 다짐했다. 이 '빨간 넥타이'에는 100마리의 양이 그려져 있는데 99마리의 흰 양과 한 마리의 검은 양으로 구성돼 있다. 넥타이 가운데에 있는 검은 양은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상징한다. 이제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자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Q. 현재 성도 수가 많이 줄었다. '길 잃은 양'을 찾아나설 가장 좋은 방도는?

A. 심방을 통해 찾아야 합니다. 신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중직자 심방부터 시작해서 떠난

“ 그는 참치처럼 자나 깨나 쉬 없이 움직이며 영적으로 성도들을 일깨우는 '참치 목사'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

성도들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무엇보다 따뜻한 위로의 손길이 필요한 환우 심방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Q. 성도들로부터 3대 담임목사로 추인 받을 때 반대표도 나왔다. 이들 표심에 대한 포용 방안은?

A. 저를 추인했든, 그렇지 않았든 모두가 영생장로교회 성도들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피로 하나로 묶기 위해 헌신하고 모범적인 목회를 해나가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정승환 3대 담임목사는 근래 '참치론'을 들고 나왔다. 참치는 생물학적으로 아가미로 숨을 쉬지 못한다고 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헤엄을 치면서 입으로 많은 물을 빨아들여 호흡해야 하고 심지어는 잘 때도 움직여야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그는 참치처럼 자나 깨나 쉬 없이 움직이며 영적으로 성도들을 일깨우는 '참치 목사'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 2022년

- 2월 8일 연말 당회에서 장로 7명, 권사 1명, 안수집사 1명, 서리집사 2명 등 11인의 위원을 구성하다. 장로: 주상용 김희동 이경은 박민호 최승찬 문태영 김요셉, 권사: 김정갑, 안수집사: 김한보, 서리집사: 이철수 박소양
- 12월 11일 첫 모임을 갖고 노회 청원, 청빙 공고, 청빙 대원칙을 세우고 실행하기로 결의하다.
 - 청빙 5대 원칙
 1. 모든 지원은 친분이나 추천이 아닌 서류 접수와 같은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모든 서류는 전 위원회의 입회하에 분류한다.
 3. 지원자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의 성경관과 신학 노선 검증에 통과되어야 한다.
 4. 지원자의 이력서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붙인다.
 5. 언제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 2023년

- 1월 4일 청빙공고에 따른 서류 접수를 시작하다.
- 3월 10일 3월 5일까지 접수된 35인의 서류 심사에 들어가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을 표준으로 신학교 과정과 교파, 교단, 목회지에 따라 모든 서류를 세밀히 심사하다. 심사에는 최종학력, 학위 증명서, 가족관계, 신앙고백, 간증, 추천서가 포함된다.

- 3월 22일 1차 서류심사 결과 영생장로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자격에 부합한 10인을 선정하고 설교 심사에 들어가다.
- 3월 22일 위원회 각 개인별 설교 평가에 따른 채점 결과 2차로 5인이 통과되다. 위원회에서 2인 1조 평가단을 구성하고 그들을 지원자의 이전 목회지에 파견하여 현지 평판을 수집한 후 위원회에 보고하다.
- 4월 19일 현지 검증 결과에 따라 위원회에서 최종 후보 3인을 선정하여 당회에 보고한 후 위원회는 곧바로 해산하다.
- 5월 17일 당회에서 투표에 의해 최종 후보 2인을 선발하고 후보 2인에게 인터뷰 일정을 통보하다.
- 6월 8일 최종 후보 2인에 대한 당회 인터뷰(사모 포함)가 1박 2일로 진행되었으며 3시간 가까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후보자에게 설교를 포함한 예배 인도와 모의 당회 진행을 맡기다.
- 6월 22일 청빙 후보자 선정을 위해 전 당회원이 릴레이 금식기도를 한 후 임시 당회를 열어 2/3 이상의 득표를 한 정승환 목사를 청빙 대상으로 정하고 공동의회에 올리기로 결의하다.
- 7월 30일 전교인이 참여하는 공동의회를 열어 2/3 이상 득표를 한 정승환 목사를 청빙하기로 하고 공표하다.

복음의 기치 높이 드는 교회 소망

정승환 담임목사 · 3대



할렐루야!
존경하는 영생장로교회 성도님들
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
로 문안드리며 개인과 가정과 생업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곧 다가오는 변화를 하나님과 교회 앞에 두렵
고 떨리는 마음으로 묵도하며 짧게나마 많은 성
도들께서 궁극해 하실 저의 향후 목회 계획에
관하여 몇 자 적어 보려 합니다.

첫째, 저와 여러분과 영생장로교회는 하나님의 계 획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
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
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
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
심이라.’(엡 1:11-12)

하나님의 예정하심(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한 선하심으로)은
섭리 가운데 나타나는데(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서 5.4) 가장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의 교회를 돌
보시고 모든 일을 교회에 유익하도록(웨스트민
스터 신앙고백서 5.7) 하시며 궁극적으로는 당
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을 섭리하십니다.
저와 성도님들 그리고 영생장로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완전한 섭리 가운데 있
음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로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았기 때문에 초
조해하거나 서두르지 않으며 하나님의 절대 주

권 하에 겸손하게, 기쁨 가운데, 인내
로 주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장로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
다. 본 교회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책임지
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을 확
신하며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영생장로
교회를 돌보며 유익이 되는데 힘을 다하여 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내하시며 부족한 종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둘째, 영생장로교회의 다양하고, 넓고, 깊은 사역 들을 먼저 배우겠습니다.

외부에서 부임하는 목사로서 지난 42년간 모
든 지혜와 기도로 이루신 아름다운 사역들을 먼
저 배우고 익히겠습니다. 지난 몇 달간 대화, 책
자, 인터뷰, 그리고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영생
장로교회를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니 사역이 다
채롭고 지경이 넓으며 각 사역의 뿌리와 영성이
깊음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이는 지난 42년간 끊임
없는 기도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자기희
생의 노력으로 쇠신을 거듭한 결과가 아닐까 생
각합니다. 개교회가 하는 사역임이 믿기지 않을
정도의 성숙하고 아름다운 사역들을 저도 같이
스며들어 체험하고 배우고 섬기다 보면 하나님
께서 저와 교우들을 하나 되게 해주시고 같은
꿈을 꾸게 하시며 다음 갈 길을 보여주시고 인
도해주시리라 확신합니다.

42년 전통의 교회를 부임하는 목사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저는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서
영생장로교회를 통하여 이루신 크고 놀라운 일

들을 감사함으로 배우길 원하며 교회의 DNA에
맞추어 가겠으니 영생 교우들께서는 저에게 수
많은 사역들과 영생장로교회의 영적 전통을 배
울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같이 인내로 동역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셋째, 기도, 말씀, 심방에 집중하겠습니다.

목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에 목회자
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기도입니다. 내 지혜
와 경험과 능력으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오로
지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장로
교회를 지키시고 본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돌보시며 유익케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길 소원합니다.

목회의 핵심 사역은 말씀 선포일 것입니다. 지
난 42년간 영생장로교회 강단을 통하여 생명을
공급해 주신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도 은혜 충만한 말씀으로 주의 백
성들을 풍성히 먹이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며 배
운 대로 하나님 말씀만 전하길 원하며 동시에 십
자가 복음을 타협 없이 담대히 선포하여 아무쪼
록 죄인을 불러 의롭다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
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싶습니다.

목회는 프로그램이나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
라 말씀과 성례 안에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것입니다.(벧전 5:2)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
에 마음을 두라’(잠 27:23) 하신 말씀대로 하나
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영생장로교회 양들만 바
라보며 목회하겠습니다. 교구장님들의 도움을

받아 꾸준히 심방하며 교우들을 알아가되 그리
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특별히 모든 분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여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열
매를 맺는 것에 목회 에너지를 쏟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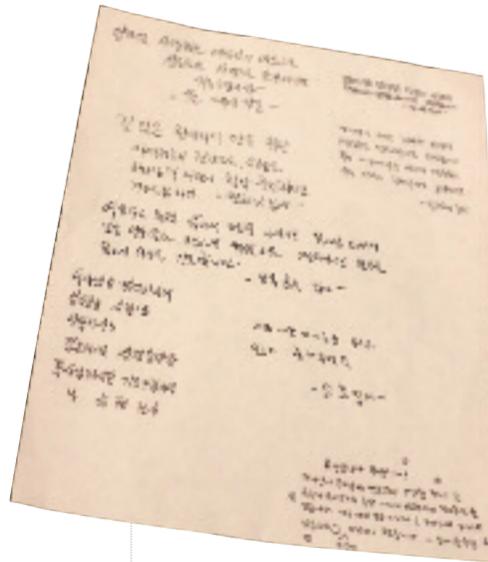
그렇습니다. 현 시점에 자세하고 장기적인 계
획을 세울 수 없고 세워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
다. 먼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의 양들을 알아
가고, 사랑하고, 먹이고, 싸매며 또한 잃어버린 양
들을 찾아내기까지 찾고 찾아 어깨에 메고 돌아
오는 것이 목회의 본질이요, 하나님께서 저를 영
생장로교회에 보내시는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변화는 두려운 것이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
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
라보며 지금까지 해오신대로 온 교회가 하나 되
어 힘을 다하여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
만, 사랑 충만’ 하기 위하여 애쓸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의 모
습이 저의 청빙지원서에 있어 한 부분을 발췌하
며 글을 맺습니다.

‘영생장로교회의 3대 담임목사님은 1세 정신
과 깊은 영성으로 어렵고 외로운 이민자들을 밤
낮으로 돌보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하며,
그 분들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로 세워진 이민교
회의 뿌리와 정체성을 다음세대에게 지속적으
로 상기시키되 복음의 자유를 존중해주며(복음
은 전수하되 복음의 적용은 그들에게 맡기며),
당회원 장로님들의 대의에 순종하며 힘써 지켜
온 40여년의 전통 안에서 같이 기도하여 주님
오실 날까지 복음의 기치를 높이 드는 귀한 교
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목사님, 새로운 시작이 기대돼요!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하기 위한 사역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문태영** 장로: 양떼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권혜진** 집사: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위한 사역을 위해 건강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충만하시길 기도드립니다.

- **왕수정** 집사: 환영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늘 독수리 날아오르듯 힘찬 에너지 공급하시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 양육 비전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을게요.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 **백훈석** 집사: 여호수아처럼 앞서서 먼저 나가시는 목사님 되셔서 모든 성도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님만 전하는 목사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 **샘 조** 집사: 저희 어린아이들을 위해 많이 힘써주세요.
- **김지혜** 집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성도님들을 인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특히 어린

- **나금향** 권사: 하나님을 경외하시며 성도들을 사랑으로 양육하시는 겸손하시고 성령 충만한 목사님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김다솜** 집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양육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 **심원모** 장로: 복음의 열정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회복되어 다시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 **허만혁** 장로: 성령 충만한 목사, 말씀 충만한 목사, 신실한 목사, 선한 목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윤명희** 집사: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시는 영생장로교회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선교사로...

“다시 선교사로 활동하는 내년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뜹니다. 앞으로 10년 정도 선교 지평을 넓히는 일에 신명을 바치고 싶습니다.”

7년간의 목회를 마치고 다시 선교사로 길 떠나는 백운영 2대 담임목사는 “목회 7년이 선교사로 사역하는데 자양분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로부터 힘들었던 것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다”며 7년 목회가 만만찮았음을 언뜻 내비쳤다.



“주일에배 사수를 위해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 내에 침투하지 않도록 사투를 벌인 일은 영원히 제 마음 속에 기억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성도들이 더욱 영적으로 성숙해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은 교회가 정상화됐다는 점이 무엇보다 기쁩니다.”

Q. 새로 부임한지 엇저께 같았는데 벌써 7년 세월이 흘렀다. 지난 세월을 복기해 본다면.

A. 그야말로 정신없이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특히 목회하는 기간에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그야말로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주일 예배를 중단해야 하는 등 교회의 근간이 크게 흔들리는 일도 있었지요. 무엇보다 마음 아픈 것은 50여명의 성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급작스럽게 희생당한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저희 아버님(고 백승노 장로)도 포함돼 있고요. 그러나 전장에서도 꽃이 피듯이 팬데믹 속에서도 복음이란 씨앗을 파종하는 일이 쉽 없이 이뤄져 왔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가집니다. 해외로 선교가기가 쉽지 않을 때 우리 이웃에 복음을 전하는 도시 선교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일에배 사수를 위해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 내에 침투하지 않도록 사투를 벌인 일은 영원히 제 마음속에 기억될 것입

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성도들이 더욱 영적으로 성숙해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은 교회가 정상화됐다는 점이 무엇보다 기쁩니다.

Q. 이제 겨우 65세인데 목회에서 물러나는 것이 다소 의외라는 반응도 있는데?

A. 물러날 때를 알고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부임할 때부터 가졌던 생각입니다. 목회는 더 나은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서 불러주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목회를 통해 얻은 경험을 토대로 선교사로 나가야 할 때가 된 것이지요.

Q. 목사로서의 자신을 평가해 본다면?

A. 7년 내내 목회지향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 전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고 늘 이번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는 각오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저의 설교에 대해 호불호가 있겠지만 결국 평가는 하나님이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관계지향적인 면에서는 다소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좀 더 성도들을 케어 하는 일에 매진할 했어야 하는 데 성격 탓인지 그게 잘 안됐습니다.

Q. 결국 선교사가 몸에 맞다는 말인가?

A.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같은 길을 걷는다고는 하지만 미시적으로 접근하면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같지만 상대

하는 방식은 많이 달랐어요. 성도들은 목사를 위로 보지만 원주민들은 선교사를 동료로 본다는 점이 내게는 혼돈스러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도들과의 스킨십이 약했던 것이지요. 돌이켜 보면 저는 역시 소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훈련시키고 교육시켜 지도자로 만드는 데 더 능력을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Q. 부임 일성에서도 “1세와 2세, 한어 목회와 영어 목회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소기의 성과는 거뒀다고 자부하나?

A. 다음 세대 육성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로 부르신 것도 다음 세대를 위해 표적을 제시하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로 인해 젊은 성도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ELM과도 다양한 교류도 시도했습니다.(ELM의 조성운 목사가 백 목사의 선교사 재파송식 때 축사를 한 것이나 백 목사가 필라델피아에서의 마지막 설교를 ELM에서 한 것은 이 같은 교류의 상징적 장면이었다.)

Q. 떠나는 마당에 아쉬운 점이 있나?

A. 다시 목회를 한다고 해도 지금처럼 했을 것이기에 후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필라델피아 도심에 예배센터를 만들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다문화권 예배를 드리고 싶었으나 이를 미완으로 남겨놓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지요.

Q. 이제 어디로 가나?

“

말레이시아로 갑니다. 왔던 데로 되돌아가는 셈입니다. 그곳에서 화교들이 운영하는 현지 신학교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는 일을 할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 불모지인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지 출신의 학생들을 훈련시켜 다시 이들을 본국에 파송시켜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

A. 말레이시아로 갑니다. 왔던 데로 되돌아가는 셈입니다. 그곳에서 화교들이 운영하는 현지 신학교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는 일을 할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 불모지인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지 출신의 학생들을 훈련시켜 다시 이들을 본국에 파송시켜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미국 오기 전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제자 훈련에 열심이었던 만큼 일을 하는 데는 문제없을 것입니다.

Q. 26년간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

A. 당시 가르치던 신학생들이 이제는 인도네시아 등에서 교단 지도자나 신학교 학장 등으로 교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때는 늘 학생들에게 “나를 디딤돌로 활용해 나보다 커나가라”고 했는데 이들이 이제 교계 지도자로 성장한 것을 보니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이들이 제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Q. 마지막 때의 사명은 무엇인가?

A. 복음 전하는 일에 남은 생을 바치고 싶습니다. 이 일을 마치고 하나님께 박수를 받고 싶습니다.

선교사 재파송식에서 축사를 했던 기쁨의 교회 박성일 목사의 말을 빌리면 이제 동역할 사모(박영은 선교사)와 함께 가장 어려운 이민 목회를 뒤로 하고 가장 쉬운 선교지로 떠나는 백 목사가 미래의 애제자들에게 가장 쉽게 복음의 해답을 제시해 주는 천생 선교사로 우뚝 선 모습을 기대해 본다.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

정위로 목사·청년부 담당



부가 기독교를 유사 유대교로 생각하고 유대교와 구분하지 못해 유대교가 누렸던 여러 가지 특혜를 누릴 수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들은 점점 더 많은 박해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박해는 지역적인 박해에서 제국 전역에 걸친 박해로 점차 확산하였고 그들은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정부의 눈길을 피해 숨어야만 했습니다. 여러 종교에 관용을 베풀었던 로마 정부는 기독교인들만은 황제 숭배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극심하게 박해했습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은 우상 숭배를 피하고자 관직을 거절하고 군대에 가지 않아 주변의 미움을 샀고 서로를 형제 또는 자매라고 불러 근친상간자들이라는 오해를 받았으며 또한 조직적으로 모이는 행위로 인해 대중의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 이름 때문에'(propter nomen ipsum) 사자 굴에 던져졌고 감옥에 던져졌으며 모진 고문을 받고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내부의 위협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니다. 유대교와 율법주의의 망령은 에비온주의에서 다시 살아나 교회를 위협했고 영지주의는 이원론과 엘리트주의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왜곡하고 부인했습니다. 말시온은 그릇된 정경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고 몬타누스는 잘못된 종말론과 성령론을 통해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역동적 단일신론은 자연인인 예수가 하나님에 의해 세례 때 입양되었다고 주장했으며 사벨리우스의 양태론은 삼위일체론을 성부 하나님이 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일 뿐이라며 성부와 성자, 성령 사이의 구분을 부정했습니다.

이러한 외부의 박해와 내부의 혼란은 때로는 교회를 집어삼킬 것만 같았습니다. 박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거세어졌고 이단의 세력은 때로는 정통 교회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커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웅전하였습니다. 수많은 목소리가 교회를 유혹하고 혼란스럽게 할 때 성령께서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요 14:16, 18)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말할 수 없는 실망감과 좌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버렸습니다. 두려웠고 불안했으며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하신 주님의 유언은 마치 오를 수 없는 산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떠나가심이 그들에게 더 유익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진리의 성령께서 고아와 같은 그들에게 친히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마치 로마의 콘크리트와 같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화산재와 생석회, 화산암 덩어리, 그리고 바닷물을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만들었는데 바닷물이 콘크리트 내 화산물질을 부식시키고 새로운 광물을 생성하여 세월이 갈수록 더욱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현대의 콘크리트는 시간이 지나면 부식되고 약해지는 데 반해 1500년 전에 만들어진 로마의 콘크리트는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람 앞의 촛불과 같았던 초대교회는 지속적인 외부의 박해와 내부의 이단들의 공격을 통해 오히려 더욱 더 단단해지고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기 백성의 타성과 죄악된 본성, 모든 거짓을 부식시키고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기원후 313년 밀라노 칙령이 공포되기까지 지속적인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로마 정

그들이 오직 사도들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사도들의 권위에 의존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친히 세우고 후계자로 세운 감독들을 사도들의 계승자로 인정했고 그들과 가르침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교회들 또한 사도적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저술인 정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그 외의 다른 모든 가르침은 부차적이거나 그릇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사도들의 고백을 따라 공통의 신조를 만들어 정통과 이단, 진리와 비진리를 식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요약하면 교회는 사도들의 계승자인 감독들, 사도들의 저술인 정경, 그리고 사도들의 고백인 신조, 이 세 가지를 통해 외부와 내부의 어려움을 극복하였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러한 고난을 통해 교회를 연단하셨습니다. 터툴리안이 말했듯 '성도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죽음과 고난의 위협 앞에서 그들이 보여준 신앙의 인내와 용기는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고 곧 복음의 확산으로 이어졌습니다. 헬라 철학과 이단들의 사상적 공격은 오리겐과 터툴리안, 그리고 어거스틴과 같은 기독교 지성인들이 교회의 정통 교리를 정립하게 했습니다. 오늘날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현실과 우리가 가진 기독교 문학과 신학의 부유는 초대교회 시대에 그 기반이 놓인 것이라고 말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 실로 감탄과 감격의 역사입니다. 팔레스타인 한구석에서 열 명 남짓의 제자를 둔 한 유대인의 가르침이 유대인들과 로마 황제들의 모진 박해, 그리고 수많은 이교 철학과 이단 사상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전파되어 결국에는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과연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열두 제자 본인조차도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그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 성령님이셨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요 14:27) 진리의 성령께서

서 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고(요 16:13) 제자들은 예수께서 돌아가셨을 때 마치 해산하는 여자가 근심하듯이 고통하고 애통하였으나 그들의 근심은 도리어 기쁨이 되었습니다.(요 16:20) 비록 그들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였지만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니 결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역사는 오늘날 교회에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줍니다. 오늘날 교회의 상황은 초대교회의 상황과 여러 모양으로 닮은 부분이 많습니다. 밖으로는 소수자 인권, 차별금지법, 종교인 과세 등의 문제로 교회에 대한 공격과 차별, 부정적 인식이 커지고 있고 안으로는 수많은 이단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들 이단은 전략적인 사업과 공격적인 포교 활동으로 교회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를 키워야 하는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지만 종교단체로서의 교회를 바라보는 다음 세대의 시선은 불신으로 차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에 대한 미래학자들의 향후 예측은 어둡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께서 초대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역사를 바라보며 주님의 신실하심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 하시겠다는 주님은 그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안팎으로 공격이 거셀 때에도 우리는 결국에는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한 번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한 그 때에 곧 강하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나타낼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결국 바닷물이 되어 로마의 콘크리트처럼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고후 4:8-9)

'내가 약한 그 때에 곧 강하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나타낼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결국 바닷물이 되어 로마의 콘크리트처럼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복음의 항해

김경희 집사

작은 돛단배 위
인디오 청년의 눈망울에 맺힌 이슬방울이
아마존 정글 강물에 떨어진다.

쏟아지는 별빛처럼 반짝이는 진주알 되어
가파른 폭포수를 거슬러 올라
하늘과 맞닿은 곳에서 부서져 내린다.

붉게 들끓는 질퍽한 대지 위
먹잇감을 찾는 주린 생명들
무성한 풀숲에 갇힌 영혼들
영적 무지에 신음하는 벌거벗은 심령들...

잠시 멈춰진 시간 속에
간절한 기도의 외침이 적막을 깨우고
따스한 구원의 숨결이 스며든다.
거칠게 내뿜는 호흡 사이로 복음의 통로가 열린다.

칠혹 같은 어둠 속 눈부시게 빛나는 복두칠성
허공에 울려 퍼지는 찬송가 선율 사이로
별뿔별이 되어 떨어지는 복음의 빛 한줄기
그 빛 따라 출렁이는 차임벨의 초록 물결...

검은 강줄기 옆 오두막 담장에 피어난
형형색색 빨래 꽃 사이로
순수한 아이의 해맑은 웃음이 새어나고
청년이 품은 꿈과 비전의 노래가
은혜의 강물 따라 굽이쳐 흐른다.

경이로운 강과 하늘의 데칼코마니 속으로
주님을 향한 삶의 여정을 싣고
끝없는 항해를 시작한다.
간절한 기도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닻을 올린다.





치아파스에 내린 은혜의 단비

우정화 집사

멕시코 선교 팀원들을 하나님께서 선교 사역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간증을 하는 큰 부담을 안고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며 이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멕시코 찬양선교에 직접 앞장서셨고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하여 주셨으며 우리로 하여금 선교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저에겐 멕시코 찬양선교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잊지 못할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멕시코에서의 첫 선교 사역은 여자교도소 사역이었습니다. 교도소의 보안이 얼마나 철저한지 우리의 신원 파악은 물론이고 우리가 입을 옷과 신발 색깔까지 검사하였고 우리의 소지품들도 교도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물며 찬양 반주를 위해 가져간 키보드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준비한 모든 곡들을 찬양할 수가 없고 몇몇 곡들만 아카펠라로 찬양해야 할 처지에 놓인 데다 음을 제대로 잡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교도소 문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무반주로 할 찬양을 연습하였는데 때마침 교도소 안에 있던 교도소 총책임자가 우리의 찬양을 듣고 우리가 가지고 간 키보드를 마지막 순간에 반입을 허락하여 교도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는 준비한 모든

곡들을 교도소 안에서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찬양은 곡을 붙인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 그리고 예수 이름을 마음껏 찬양을 통하여 선포했습니다. 찬양을 통하여 그곳은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교도소 수감자들은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눈물을 흘리며 '떼창'으로 호응했습니다. 교도소가 은혜와 기쁨으로 넘쳐흐르던 적인 일찍이 없었고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교도소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고 행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너를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시 46:10)라는 말씀이 계속 생각나며 저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들 센터에서도 찬양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아들 또래의 청년들이 대부분이었으나 열 살짜리 어린 여자아이도 있었고 나이든 노인까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찬양을 통하여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였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

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떠올라 저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국적 불문하고 사회적 지위, 남녀노소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면 그들이 감옥 안에 있는 수감자이든, 마약 중독자이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깊이 깨닫습니다. 아울러 여태껏 편견을 가진 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였습니다.

목회자 세미나에서도 찬양과 세미나를 통해

믿음의 경주를 하듯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 달려가시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의 모습이 너무 존경스러웠고 저에게 큰 감격을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과 눈물이 있는 곳에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눈물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 그 위험하고 열악한 지역에 계신 현지인 목사님들과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목회가 너무 힘들어 목회직을 그만두려던 차에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게 된 한 여자 현지인 목사님께서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고 목사님 말씀 중에 자신의 생각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깊이 회개하며 다시 목회를 하기로 마음을 돌이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아파스 시내 광장에서 우리는 현지인 목사님들과 함께 사영리를 전하는 사역도 하였는데 찬양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 문이



열리는 것을 목도한 현지인 목사님들께서 너무나 큰 도전과 감격을 받은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듯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 달려가시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의 모습이 너무 존경스러웠고 저에게 큰 감격을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과 눈물이 있는 곳에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눈물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미나에 참석했던 현지인 목회자님들의 감사 인사를 포함한 이영성 선교사님의 메시지 한 부분을 전해 드리고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큰 은혜의 자리였고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한 강의는 큰 도전이었다며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어서 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세미나에 참석했던 목회자님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이용걸 목사님의 강의와 천사들의 목소리라고 극찬했던 현지인 목사님들의 말씀처럼 찬양단의 아름다운 찬양은 영적으로 메마른 치아파스에 단비를 내려주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사랑과 섬김, 그리고 모든 분들의 헌신과 열정에 저 또한 느꼈던 마음들을 다지는 기회였습니다. 귀한 동역자들의 위로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되어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아멘.



예수 사랑 전하는 축복된 삶

신정혜 집사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불안정한 경기로 일자리를 잃고 다른 일자리를 찾기 전 시간이 있다는 이유로 태국선교를 지원하였다. 더위에 많이 취약한 체질이라 동남아 쪽은 여행으로라도 기피하고 싶은 지역인데 단지 시간이 많다는 이유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많은 망설임이 있었지만 내 지원동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면 나를 리스트에서 빼주실 것이라 생각하며 일단 지원서를 제출하였다. 역시 예상대로 비행기 예약에 문제가 생기며 내심 태국선교를 접으려 할 때쯤 예약 문제가 해결되어 다시금 마음을 잡고 선교 준비에 동참하게 되었지만 나의 가장 큰 이슈인 무더위를 어떻게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왜 나를 태국에 가게 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은 계속 되었다.

그렇게 시작된 나의 태국선교 준비였지만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박태수 선교사님과 정기적인 줌 미팅을 통하여 라오스와 국경지대에 있는 태국의 이싼 지역이 오랜 시간 선교를 통해서도 기독교 개종률이 고작 0.2%밖에 되지 않는다는 상황을 듣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여

한사람의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을까 고심하시는 현지 선교사님들의 열정을 보면서 좀 더 열심히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나라들은 직접 복음을 제시할 수 없어 학교나 병원 등과 같은 기관을 운영하며 현지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데 태국은 복음의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전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어 대면 선교가 너무나 적합한 곳이라고 하셨다. 추수할 때가 다가오는 이때에는 다른 어떤 방법보다는 직접 대면하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밖에는 대안이 없다고 하셨다. 그것을 위해 이싼 우돈타니 지역에서 가장 큰 현지인 교회인 사마키타 교회가 영생장로교회의 예수사랑초청잔치(예사초)를 모델로 삼아 해마다 예사초를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한류를 이용해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한국문화행사를 해줄 것을 제안하셨다. 우리 선교팀은 한복을 모으고 떡볶이와 김밥 재료, 그리고 전통계임을 준비하여 태국으로 향했다.

연일 섭씨 35도가 넘는 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현지 교인들과 함께 예사초 홍보물과 사영리를 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초대장을 나누어 주었고 그 가운데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면 현지 교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 팀원들은 뒤에서 함께 기도를 해주었다. 그 와중에도 나는 더위를 견디기 힘들어 투덜거렸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있는 시원한 집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 집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열게 해주셔서 복음이 전해지는 동안 땀을 식힐 수가 있었다. 나의 부끄러운 투정마저도 어르고 달래

가시며 복음 사역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예사초 당일에도 무더위는 계속 되었지만 생각보다 많은 인원들이 사마키타 교회로 몰려들어 한국문화를 체험하며 즐거워했고 그 후에 진행되는 찬양과 간증, 현지 목사님의 복음 메시지를 통하여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다. 이후로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예사초 사역을 현지 교인들과 함께 은혜로 기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 후 일주일간은 이싼 지역의 현지 목회자들의 세미나를 돕는 사역을 하면서 태국인들과 함께 전도훈련을 나가는 시간이 있었다. 말이 서로 잘 통하지 않아 번역기를 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서로 통하는 마음만은 확인할 수 있었다. 내가 속한 현지인 조원들과 함께 한 지역에서 우연히 영어가 가능한 국제학교 고등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고 현지 목회자들이 나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주시기에 그들 앞에서 내가 대학생 때 하나님을 만났던 것과 만남 이후에 달라진 삶에 대하여 짧은 간증을 하였다. 그 간증을 하는 동안 학생들이 나에게 집중하며 바라보는데 어찌나 눈빛들이 반짝거리는지 그 눈빛에 내가 은혜를 받아 나도 모르게 마음이 몽클해짐을 느끼며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큰 일꾼들로 쓰임 받을 것 같은 기대감이 왔다. 무엇보다도 10년 이상 한어중고등부 교사를 하면서 늘 내가 준 것보다 더 많은걸 나에게 준 우리 학생들이 생각이 나서 더욱더 울컥했던 것 같다.

부족하고 준비되지 못한 마음으로 참여한 선

예사초 당일에도 무더위는 계속 되었지만 생각보다 많은 인원들이 사마키타 교회로 몰려들어 한국문화를 체험하며 즐거워했고 그 후에 진행되는 찬양과 간증, 현지 목사님의 복음 메시지를 통하여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다. 이후로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예사초 사역을 현지 교인들과 함께 은혜로 기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참 많은 풍성함을 주셨다. 영혼구원에 대한 열정보다 더위를 더 걱정했음에도 그들과 시원한 바람으로 보살펴 주셨고 내가 온전하던, 온전하지 않던 상관없이 나를 그곳에 보내주셔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귀한 축복의 삶을 알게 해주셨다. 태국에서 만난 그 학생들의 눈빛은 아직도 내게 강하게 남았기에 지금도 가끔씩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는 축복된 삶을 살고 있으리라는 믿음이 생긴다.

늘 순종하기를 주저하는 나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주님, 그런 주님의 사랑이 나를 결국에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며 그 이끄심으로 지금도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

천승재 집사

2019년에 필라델피아지역으로 이사 와서 영생장로교회에 정착하게 된 저희 가족은 가족과 함께 갈수 있는 단기 선교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2013년에는 처음으로 버지니아에서 다니던 교회를 통해 니카라과 단기선교를 다녀왔는데 그 후에 아이들과 함께 갈 수 있으면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인 저희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2023년 여름 시라큐스 난민 선교에 참여하기를 기도 가운데 결정하였습니다.

간단한 선교훈련과 기도회로 선교를 준비한 저희 가족은 지난 6월에 정성기 목사님 · 이인선 집사님 가정과 함께 뉴욕 시라큐스한인장로교회로 향했습니다. 시라큐스에 정착한 난민 아이들에게 선물할 학용품과 장난감을 가득 싣고 설렘 반, 기대 반의 심정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저희가 도착한 시라큐스한인장로교회의 모습은 참 정겨웠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어른 교인 수보다 아이들 수가 더 많아서 놀랐습니다. 초·중·고등학생들이 함께 어울리고 모든 교인들이 거리낌 없이 서로를 가족처럼 대하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도 아이들과 함께 한국어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고 한편으로는 부러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시라큐스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 청소년, 아이들까지 잠깐 함께 하는 저희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셔서 저희는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벌써 여러 해 동안 난민사역을 하시고 그들을 위해 온 교회가 기도와 헌신으로 하나 되는 모습, 그리고 잠깐의 여름성경학교로 끝나는 것이 아닌 컴퓨터반이나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그들이 이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을 돕고 연구한다는 것을 들었을 때 난민들을 향한 그 사랑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그저 한주만 도울 뿐이지만 그곳에 계신 교인들에게는 이것이 변치 않고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



푸는 것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예로 몇 장로님들께서는 가족과 함께 술선수범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여름성경학교 전에 난민들이 사는 곳의 길가 청소도 하시고 집수리 등 리모델링 같은 섬세한 일까지도 도와드린다는 말을 듣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그분들에게서 보였습니다.

저희 영생팀이 도착한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 저희는 오리엔테이션과 말씀으로 준비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준비과정에서 인상 깊었던 점은 많은 교회들이 세계 여러 나라로 선교사들을 보내고 후원하지만 시라큐스는 이와 반대로 세계 각국에 있던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어서 세계가 오히려 시라큐스로 와 선교현장을 자연스럽게



만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적 교회로서 무분별한 전도로 사람 수만 늘리는데 집중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몇 안 되는 순결한 교인들을 바른 교리와 그리스도만을 향한 믿음으로 가르치고 양육해 그들의 각자 삶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선교사로 살며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일을 집중한다는 것을 배우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번 난민을 위한 여름성경학교는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을 받들어 'Confess Jesus Christ is Lord' 라는 주제로 한 주 동안 난민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섬겼습니다. 벌써 13년에 걸쳐 매년 열었던 여름성경학교라서 그런지 아이들, 어른들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자연스럽게 하루하루가 어려운 점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내어졌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친 경력이 없는 저희 부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들으며 배웠습니다. 신나는 바디 워십, 각종 art and craft와 게임, 스킷 등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신실하심을 여러 방법으로 나눌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진 놀이들이 저희 부부에게 신선하고 색다른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글자 없는 책에서 다섯 가지 색깔을 테마로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을 난민 아이들과 나누었습니다.

첫째 날은 색깔은 금색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그 완벽한 창조물을 생각했습니다. 둘째 날은 검정색으로 우리의 죄가 그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물을 더럽히고 모든 것을 캄캄하게 만든 것을 배웠습니다. 셋째 날은 우리의 죄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빨간색으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왜 그는 피를 흘려야 했는가를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서 예수 그 위대하신 이름을 옆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고백하지 못했던 것들, 자신 있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평소에 말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편법과 자기합리주의에 빠져 살았던 내 자신에 대해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배웠습니다. 넷째 날은 정결됨을 상징하는 하얀색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여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서 칭의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배웠습니다. 마지막 날인 다섯째 날은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우리를 그 안에서 성숙하고 자라는 모습을 상징하는 녹색으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함을 배웠습니다.

저희 생각이지만 이 여름성경학교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날에 있었습니다. 그날에 모두가 난민 아이들과 한명씩 짝지어 이 글자 없는 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어른들의 나눔보다 아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이 담대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번 시라큐스 단기선교를 통해 많은 영적 도전을 받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서 예수 그 위대하신 이름을 옆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고백하지 못했던 것들, 자신 있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평소에 말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편법과 자기합리주의에 빠져 살았던 내 자신에 대해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났던 난민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시라큐스 교인과 우리를 포함한 함께 참여했던 선교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으로 이끌었습니다.



특집 _ 일꾼을 세우다

10월 22일 영생장로교회 창립 42주년을 맞아 새로 일꾼을 세운 임직식은 다양한 주목거리를 남겼다. 우선 장로, 권사, 안수집사 후보로 선출된 33명이 모두 2차 투표에서 성도들의 추인을 받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새로 일꾼을 세우다

“

10월 22일 영생장로교회 창립 42주년을 맞아 새로 일꾼을 세운 임직식은 다양한 주목거리를 남겼다.

”

10월 22일 영생장로교회 창립 42주년을 맞아 새로 일꾼을 세운 임직식은 다양한 주목거리를 남겼다.

우선 장로, 권사, 안수집사 후보로 선출된 33명이 모두 2차 투표에서 성도들의 추인을 받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2019년 장로 후보 중 3분의 1인 3명, 권사 후보 중 절반인 6명이 최종 투표에서 탈락했던 점을 생각하면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난 셈이다. 후보들의 면면들의 경쟁력도 있었지만 당시 탈락했던 다수가 다시 후보로 올라온데 대한 동정심의 발로도 있었다는 후문이다. 백운영 담임목사가 강대상에서 '전원 당선'을 강조했던 데다 일반 성도들도 이미 1차 투표에서 가이드라인을 통과했던 후보들을 지난번처럼 탈락시켜 분란거리를 만들면 교회에도 이롭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

“

2010년대 초반은 영생장로교회가 4천명의 성도를 헤아릴 정도였던 최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절이었던 데다 '창립 30주년(2011년)'이란 상징성이 겹쳐졌기 때문에 대규모 임직자를 배출할 수 있었다는 것. 따라서 가장 공정한 잣대인 성도 수 대비 임직자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가 사실상 역대 최다 배출연도라고 규정할 수 있다고 교회 역사에 밝은 한 장로는 나름 분석했다.

”

박형선 장로 등 33명이 한꺼번에 임직을 받은 것은 규모면에서는 역대 3위였다. 역대 최다는 장로 10명, 권사 20명, 안수집사 20명 등 총 50명의 매머드 임직자를 배출했던 2014년이었고 다음은 장로 10명, 권사 13명, 안수집사 18명 등 41명을 뽑은 2011년이다. 그러나 2011년, 2014년과 현재를 숫자뿐만 아니라 순 비교해 등수를 매기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2010년대 초반은 영생장로교회가 4천명의 성도를 헤아릴 정도였던 최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절이었던 데다 '창립 30주년(2011년)'이란 상징성이 겹쳐졌기 때문에 대규모 임직자를 배출할 수 있었다는 것. 따라서 가장 공정한 잣대인 성도 수 대비 임직자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가 사실상 역대 최다 배출연도라고 규정할 수 있다고 교회 역사에 밝은 한 장로는 나름 분석했다.

아울러 임직자들의 감사헌금도 완전 자율화했다. 자율화로 결정한 마당에 헌금의 차이로 위화감이 들지 않도록 임직자들이 낸 감사헌금은 일체 비밀에 부치는 후속조치도 취했다. 백





“
권사들의 경우 임직식에는 당연히 한복을 입어야
만 했던 기존 관례도 타파해 복장 자율화도 꾀했다.
”

담임목사는 주일예배에서 “나도 누가 얼마를 헌금했는지 모른다”며 비밀이 형식이 아님을 누차 강조했다. 권사들의 경우 임직식에는 당연히 한복을 입어야만 했던 기존 관례도 타파해 복장 자율화도 꾀했다. 실제로 비록 양장을 입고 나온 임직 권사는 한 명에 불과했지만 ‘전원 한복’이란 창립 이후 40년 이상 고수돼 온 견고했던 프레임에는 균열이 가해졌다. ‘자율 헌금’과 ‘자율 복장’은 그동안 교회라는 이름에는 맞지 않은 오랜 관행을 깨고 자율성을 날개 삼아 제2의 도약을 꾀해 나가자는 저변의 인식도 깔려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번에 9명의 장로를 대거 배출함에 따라 교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당회에도 상당한 지각변동도





신임장로일동



신임권사일동

“
특히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장로의 경우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60대라는 점은 그동안 젊은 교회를 표방해 온 교회 입장에서는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남은 셈이다.

”

예상된다. 현재 총 15명인 시무장로 가운데 연말로 4명이 은퇴함에 따라 이번에 새로 9명의 장로가 당회에 입성하면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되는데다 백운영 담임목사 시절 임직된 장로들이 이용걸 원로목사 때 임직한 장로들을 능가함에 따라 당회 운영도 이전과는 다를 것이란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 원로목사 시절 임직한 장로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 때는 “귀머거리 3년, 병어리 3년을 보내며 선배 장로들의 의견에 군소리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앞으로는 그렇게 되기 힘들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당회가 교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문화만큼은 고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선순환적인 장점에도 불구하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할 것 없이 평균 연령대가 여전히 높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장로의 경우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60대라는 점은 그동안 젊은 교회를 표방해 온 교회 입장에서는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남은 셈이다.

한편 이날 임직예배에서 백운영 담임목사는 ‘섬김을 위한 직분’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 “특히 하나님께서 장로라는 직분을 주신 것은 섬김의 역할을 다하라는 이유에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임직자들은 교회의 손발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고 충성된 청지기가 돼야 하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백 담임목사는 재차 당부했다.

이용걸 원로목사는 “우선 임직자 모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처신을 해야 한다”면서 “장로는 당회 회목에 힘쓰고 권사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돼야 하며 안수집사는 칭찬받는 일꾼이 돼야 한다”고 임직자들에게 권면했다. 이 원로목사는 “이러한 섬김이 있을 때 교회가

“이 원로목사는 “이러한 섬김이 있을 때 교회가 부흥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성도들은 임직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칭찬하라”고 성도들에게 당부하면서 “새로운 임직자들과 성도들은 정승환 3대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 교회가 은혜롭게 부흥해 나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

”





신임안수집사일동

“

모든 임직자들을 대표한 박형선 장로는 답사를 통해 “임직을 하는 저희들은 기쁨보다는 오히려 두려움과 떨림이 앞선다”며 “저희들이 책망할 것이 없는 모범적인 직분자들이 되도록 주님께 지혜를 간구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부흥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성도들은 임직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칭찬하라”고 성도들에게 당부하면서 “새로운 임직자들과 성도들은 정승환 3대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 교회가 은혜롭게 부흥해 나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

모든 임직자들을 대표한 박형선 장로는 답사를 통해 “임직을 하는 저희들은 기쁨보다는 오히려



두려움과 떨림이 앞선다”며 “저희들이 책망할 것이 없는 모범적인 직분자들이 되도록 주님께 지혜를 간구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 지식과 지혜로 신앙을 굳건히 하고 성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복음의 힘을 통해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

박형선 장로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는 오늘 임직하신 아홉 분의 장로님, 열두 분의 권사님, 열두 분의 안수집사님들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부족한 저희들의 임직예배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권면해주신 이용걸 원로목사님과 축사해주신 예승장로교회 김성철 목사님·저희 교회 제3대 목사님

으로 위임 받으신 정승환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임직자들을 몇 달간 훈련시켜 주시고 여러 면으로 배려해주신 백운영 담임목사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들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신 사랑하는 영생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직분자 모두는 여러분의 기도와 지지, 격려로 인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임직을 하는 저희들은 기쁨보다는

오히려 두려움과 떨림이 앞섭니다. 주신 직분에 걸맞게 주님께 더욱더 다가가는 삶,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주님보시기에 합당해야 하는데 과연 잘 감당을 할 수 있는지, 만약 행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책망이 어떠하실지 심히 두려운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책망할 것이 없는 모범적인 직분자들이 되도록 주님께 지혜를 간구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성도님들의 기도가 절실합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저희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지만 이용걸 원로목사님께서 항상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시고 금일 임직예배에 백운영 목사님께서도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해 주셨으며 정승환 목사님의 축사도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셔서 저도 이에 맞추어서 세 가지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 지식과 지혜로 신앙을 굳건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연구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에 부응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회의 비전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교제하며 통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우들에 대한 돌봄을 소홀히 하지 않고 어려움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일을 수행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깊이 상고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행하여 주님께서 "참 잘 하였다"고 칭찬해 주시는 선한 직분자들이 되도록 정진하겠습니다.

격려하고 성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리하여 교회 내의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켜 교회가 통합·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교회는 지역사회와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파하는 헌신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필요에 부응하며 가난한 이웃들을 돕고 무엇보다 복음의 힘을 통해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금번 주일 이용걸 원로목사님의 말씀과 같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교회로 인도하는 일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드린 사항들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지혜를 저희들에게도 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일을 수행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깊이 상고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행하여 주님께서 "참 잘 하였다"고 칭찬해 주시는 선한 직분자들이 되도록 정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



오직 예수



신임 장로



박형선

1993년

예수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자.

영생오케스트라 대원, 성극부 부장, 어퍼더블린·메이플 구역장, 갈렙·다니엘·모세전도회 회장, 노방전도단 대장(현재)

부족한 저에게 장로의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성도님께 감사를 드린다. 칭찬받는 장로,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돌보는 믿을 수 있는 장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한보

1983년

모태신앙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자.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 예배 부 차장, 전도폭발 교사 훈련자

부족한 저한테 장로의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항상 겸손히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종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장인순

2004년

부모님의 믿음

성경대로 살자.

주일학교 교사 및 부장, 찬양대

지금까지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 생각이지만 장로라는 직분이 많은 중압감을 느끼게 한다. 주님 주신 힘으로 최대한 노력하겠다.

교회 등록연도

기독교인이 된 동기

신앙 좌우명

주요 사역 경력

임직 소감 및 각오

신임 장로



이세학

교회 등록연도 1994년

교회 등록연도

미션스쿨을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나가게 되었음.

기독교인이 된 동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자.

신앙 좌우명

새생명훈련 간사, 취사부, 임마누엘찬양대, 새가족부, 예배부

주요 사역 경력

주의 일에 쓰임 받도록 귀한 직분을 세워주신 하나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며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임직 소감 및 각오



경기욱

2002년

친구의 전도

친구의 전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새생명훈련 간사, 목양위원, 주차 봉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부족한 자를 통해 일하실 것에 감사하며 온유와 겸손으로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겠다.



장인하

1996년

유아세례

유아세례

‘세상 끝날 까지 함께 하리라.’ (마 28:20)

모세 · 엘리야전도회 회장, 새생명훈련 간사(2011년~현재)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 되기를 소망한다.



오세진

1991년

모태신앙

모태신앙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만 바라보자.

유치부 (1991~93년), 정보화 위원회 (1999~2013년), 선교위원회 서기 · 총무 (2014~21년), 임마누엘찬양대 총무 (2022년), 새가족부 차장(2023년~현재)

신실하고 겸손한 장로가 되겠다.



허만혁

1987년

모태신앙

모태신앙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찬양대, 블레어밀 구역장, 전교인수양회 체육대회 진행, 새가족부, 예배부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중에도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작은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온전한 뜻을 잘 분별하는 청지기가 되도록 기도한다.



조남수

2001년

이모의 전도에 의해.

이모의 전도에 의해.

섬김, 사랑

한어부 교사 · 부감, 청년부 부감, 회계부 회계집사

영생장로교회의 미래가 달린 청년부 · 젊은장년부와 60~70대의 연결고리가 되겠다.

교회 등록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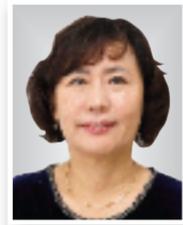
기독교인이 된 동기

신앙 좌우명

주요 사역 경력

임직 소감 및 각오

신임 권사



이현주

교회 등록연도
2002년

기독교인이 된 동기
어릴 적 언니와 함께
주일학교에 나가면서.

신앙 좌우명
예수님의 사랑을
주위에 전해 함께 주
님나라 가자.

주요 사역 경력
호산나 · 살롬찬양
대, 전도폭발훈련

임직 소감 및 각오
하나님께서 맡겨주
신 사명으로 알고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교회 공동체를 섬
기고 주신 작은 달란트
로 책임을 감당하여 주
위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이수경

1998년

언니의 전도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
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 12:1-2)

주일학교 교사(1998
년~2014년), 노방전도단
대원(2015년~현재), 헛
세드사역 (2020년~현재)

귀한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성도님들께 감
사를 드린다. 기도에 힘써
주님의 손과 발로 쓰임 받
을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서상예

2008년

유년시절 친구의
전도로.

구원하시고 자녀 삼
아주신 은혜에 감사하
며 이를 다른 사람들에
게도 나누며 살자.

찬양대, 새가족부

일상에 더욱 성실
하며 주어진 직분을
서로 협력해서 잘 감
당하겠다.



장기백

2009년

대학생 때 UBF(대
학생성경읽기선교회)
를 통해 전도 받음.

말씀 안에서 옳고 그
름을 판단하며 살되 나의
잘못도 인정할 줄 알자.

찬양대(2009년~
현재)

이 직분을 잘 감당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지만 말씀과 기도
에 더욱 힘을 쓰고 주
님 주시는 지혜와 새
힘으로 잘 감당하도
록 노력하겠다.



김순영

2006년

모태신앙

말씀에 순종하고 생
명처럼 예배드리자.

노방전도단, 살롬
찬양대(현재), 새가
족부(현재)

부족하고 연약함
에도 주님의 일꾼으로 삼
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자
의 구원할 것은 충성이
라 하였으니 인내와 겸
손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미영

2006년

친구의 전도로.

하나님의 청출어람
이 되자.

영아부(2007년, 2014
~16년), 노방전도(2018
년~현재), 임마누엘찬양
대(2020년~현재)

오직 주께 영광이
요, 이름도 없이, 빛
도 없이 섬기겠습니다.



이선우

1996년

남편의 인도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다, 함께하신다, 역사
하신다.

노방전도단(2011~
16년), 선교위원회
(2017년~현재)

믿음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세워주
심에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말씀에 순종
하는 사람, 부끄러움
이 없는 사람, 하나님
께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



윤옥정

2012년

모태신앙

'세상풍조는 나날이 갈
리워도 나는 내 믿음 끝까
지 지키리라' 는 신앙인으
로 끝까지 승리하자.

호산나 찬양대원
(2012년~현재), 구역
권찰(2018년~현재)

두 번째 받는 권사
취임임에도 늘 부족
하다는 마음뿐이다.
전보다 더 어두운 밤
이 오기 전에 겸손함
과 성실함으로, 감사
함으로 잘 감당하기를
기도한다.

교회 등록연도

기독교인이 된 동기

신앙 좌우명

주요 사역 경력

임직 소감 및 각오

신임 권사



김금숙

2009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

전도폭발훈련(2010~15년), 호산나찬양대(2009년~현재), 새생명 훈련(2020년~현재)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다. 권사의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늘 기억해 겸손하게 성도의 사경을 살피며 기도하며 섬기는 데 모범이 되길 다짐한다.



문봉애

2002년

어릴 적 엄마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

찬양대(2007~2018년), 취사부(2014년~현재)

솔직히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많이 부족한 제가피택이 되어서 너무 부담감이 크고 마음이 무거웠다. 부족한함을 채워가며 순종하면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하겠다.



나선희

1990년

모태신앙

주님과 동행하는 삶,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찬양대, 주일학교 교사, 취사부

자격없는 저에게 권사라는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 허락하신 삶 안에서 충성하길 소원한다.



고수지

1995년

모태신앙

복음으로 돌아가 오직 온전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자.

영생한국학교 교사(1995~2022년), 각 찬양대 반주자(1995년~현재)

부족한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힘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하게 섬기겠다.

신임 안수집사



이철수

2013년

어머님을 따라.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님 따라 가자!

노방전도단(2016~2022년), 금요찬양팀(2020년~현재), 친교부(2023년)

주님이 주신 직분이 라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겸손히 전진하겠다.



장건희

2011년

부모님을 따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라.

청년부(2012~2021년), 호산나찬양대(2011~현재), 젊은장년부 부장(2022년~현재)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섬기겠다.



안형철

2002년

모태신앙

하나님 마음을 품고 닦아가며 살기, 항상 기뻐하기, 쉬지 말고 기도하기, 범사에 감사하기.

회계부(2017년~현재), 피스밸리2 구역장(~현재), 영생오케스트라(~현재)

부족한 사람이 안수집사 직분을 받았으나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주님께 나가겠다.



백훈석

2005년

아내와 아이들 따라서 출석.

오직 예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미디어팀(2007년~현재), 전도폭발훈련 강사(2016년~현재)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안수집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로 살겠다.

신임 안수집사



구자선

교회 등록연도
2000년

기독교인이 된 동기

모태신앙

신앙 좌우명

힘써 여호와를 알자.

주요 사역 경력

조경부 부장, 건물 관리위원회, 영생오케스트라, 노방전도단

임직 소감 및 각오

과한 직분을 받았지만 주님 맡겨주신 일이라면 충성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배현수

교회 등록연도
1988년

누님의 인도로.

제2의 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 드리는 삶을 위해.

영생오케스트라 (1994년~현재)

영생오케스트라의 찬양의 품격이 더욱 높아지는 그날을 바라보며 항상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다짐해 본다.



권민진

교회 등록연도
1999년

김한보 장로 · 나선희 권사 부부의 전도로.

미지근하지 않는, 신실한 참 그리스도인이 되자.(요계 3:16)

새생명훈련, 전도폭 발훈련, 선교위원회

우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 더욱 사랑과 섬김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는 성도가 되고 싶다.



홍정길

교회 등록연도
2007년

모태신앙

Trust in Him.

회계부

순종하자.



김유장

교회 등록연도
2011년

주일학교 출신이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것은 청년부 때.

예수님만 바라보자.

호산나찬양대

감사하며 잘 섬기겠다.



채영중

교회 등록연도
1993년

이민 와서 이웃집 목사님의 전도로.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골 3:23)

전도폭발훈련(2기), 초등부 교사, 찬양대 대장

하나님께서 좀 늦었지만 날 사용해 주어서 기쁘고 성도님께 감사하다. 천국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주의 나라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 봉사하겠다.



이인선

교회 등록연도
2012년

교회 고등부 경건회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

예수님을 본받자.

한어부, 교육부 차장, 선교위원회(현재)

피택 집사로 뽑아 주신 건 더욱 더 열심히 주님과 교회를 섬기라는 채찍질로 여기고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섬기겠다.



김재운

교회 등록연도
2009년

모태 신앙이지만 대학 시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자.

호산나성가대, 새생명훈련 간사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통한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겠다.

섬김의 자리, 신앙의 자리로

구자선 집사



저는 이번에 안수집사로 피택 받았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이번 피택으로 더욱 겸손한 가운데 섬김의 자리로, 더욱 주 만 바라보는 신앙의 자리로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며 학창 시절 임원으로 활동하는 등 교회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부모 형제 없는 이민생활 가운데 어린 시절 받은 은혜도, 신앙 밀천도 다 떨어지고 오로지 내 자신만 바라보는 기복주의 일차원적 종교 생활에서 크게 벗어나질 못하던 찰나에 지난 7년간의 백운영 목사님의 말씀과 여러 성도님들의 진정어린 사랑과 위로, 기도로 저는 다 시금 어린 시절 받은 은혜가 회복되어 신앙의 진전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저는 여러 부서에서 조용히 맡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영생오케스트라에서 악기로, 노방전도에서 찬양으로, 건물관리위원으로, 조경부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2000년부터 영생오케스트라에서 어린 시절 취미로 배운 색소폰을 연주합니다. 지휘자님은 저 같은 취미 수준의 대원들을 모아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기 한사람, 한사람 가르치시는 걸 즐거이 하시며 주님께 아름다운 찬양 드리는 것에 기쁨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영생오케스트라 원로이신 정문량 장로님은 구두 뒤축 가죽이 헤어져 하얀

속이다 보일 때까지 신고 다니면서도 구제와 손 대접하는 걸 즐거워하며 대원들을 격려하는 등 영생오케스트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기쁨과 함께 이런 오

케스트라의 분위기가 저를 20년 넘게 영생오케스트라를 섬기게 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약 10년 전부터 노방전도단에서 색소폰으로 찬양을 하며 전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영생오케스트라에서 절제된 연주를 하다 노방전도단에서는 단원들과 함께 자유롭게 힘써 은혜로운 찬양을 합니다. H마트나 아씨플라자 앞에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외치며 전도하는 기쁨 속에서 은혜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일이다. 일이 전도다”라고 하며 심장수술로 인하여 아픈 몸을 이끌고 찬양에 열중하는 박두용 집사님, 비오는 날 중국인 부부가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아 애를 먹는 모습을 보고 본인의 차로 배터리를 사와 교체해 준 김경덕 집사님 같은 분이 수두룩한 노방전도단에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6)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실천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의 믿음의 행위에 큰 도전을 품게

“

힘써 여호와를 알아감으로 성도가 아니었던 나를 성도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신앙의 진전을 이루어가고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기도 간구로 권면하시는 백운영 목사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

합니다.

2023년부터는 조경부장으로 섬기면서 전지 작업에 신경 쓰며 나름대로 교회 나무들을 예쁘게 다듬어 가고 있습니다. 이곳저곳 작업을 하면서 잘된 곳, 잘못된 곳, 못한 곳이 있어도 외부건물관리 부장님이신 전승현 장로님은 늘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힘을 주시며 큰 형님의 모습으로 품어주십니다.

제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번 피택을 통해 더 이상의 실족 없이 십자가를 사모하며 신앙의 진전을 이루어가기를 간곡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갈 6:14)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빌 1:12)

십자가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신앙의 진전을 이루면서 힘써서 여호와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비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호 6:3)

힘써 여호와를 알아감으로 성도가 아니었던 나를 성도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신앙의 진전을 이루어가고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기도 간구로 권면하시는 백운영 목사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

모든 것이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나니

이미영 권사



통스럽고 어찌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밀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피택 권사 훈련 중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이 더 생겼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하는 기도

였습니다.

새벽기도 가면 권사로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하는데 이렇게 영적, 심적으로 허덕이고 있으니 남에게 말도 못하고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런 내 모습이 보기 좋으세요. 해결 좀 해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냐고요.’

몇날며칠 간절히 기도했더니 내 속에서 ‘너



할렐루야!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시 16:2)

부족한 저에게 늘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주시고 힘주시고 용기주시

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딸 이미영 권사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자 내 마음속의 오래전 간직한 소망인 ‘권사’라는 직분을 사실 저는 무척 사모하고 흠모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미래의 권사 모습을 늘 생각하고 있었기에 이렇게 기도로 구한 것이 응답받으니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권사 임직패 받으러 나가기 전 저는 몸이 갑자기 뜨거워져 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라 말할 수 없는 느낌, 평온함 속에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임직식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가문의 영광이네. 잘났네, 잘났어. 할렐루야!” 믿지 않는 여동생과의 통화 중 했던 말에 터져 나오는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임직식 다음 날부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벽기도가 일상화돼 있긴 했지만 그전에는 기도하는 한 시간이 길게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한 시간이 금방 지나가버린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변화는 갑자기 권사 직분이 굉장히 부담감으로 작용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고

“

내 형편과 내 속으로 했던 말, 숨소리조차도 놓치지 않으시는 세미하신 하나님, 내 속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어찌 내가 사랑하고 신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걱정하고 무슨 일들에 낙심하겠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아노니 오직 나는 잠잠히 기도하리라.’

”

는 너의 기도 그 몇 가지를 다 발로 밟아 누르고 하늘을 쳐다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요동쳤습니다.

‘다 발로 밟아 누르고 일어서라고요. 하늘을 보라고요.’ 기도로 반문하자 내 몸과 사지를 붙들고 있던 것들이 갑자기 다 물러 나가는 것 같았고 나를 누르고 힘들게 하던 것, 답답한 것들이 없어지면서 내 마음은 담대해지면서 평안함이 느껴졌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네 영광을 보리라. 너의 그 아픈 상처를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도 그런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사 성령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내가 그 아픈 것을 가장 잘 아니까 기도하라고 하셔서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늘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통로를 열어 기도 응답을 맞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힘든 시기에 사람과 마주치기 싫어하는, 허리가 아픈 나에게 교회 화단을 꾸밀 ?꽃을 남편과 함께 구입하게 하시고 아

울러 성전 부활절 꽃 장식도 같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 선물로 하나님께서 꽃 장식을 하던 중 천사를 만나게 해 주시고, 성가대에서 (방패) 장로님을 만나게 해 주시고, 노방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슬픔과 아픔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에 대한 따뜻한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두 달 전 “임직자 중에 간증을 서야 한다”는 한 장로님이 말씀하시며 “누군가를 추천하라”고 하셨습니다.

내심 내가 하고 싶었지만 마음이 넓은 편도 아니면서 “다른 분이 했으면 합니다. 저는 안 해도 되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에게 직접 말하면 할 수도 있을 텐데 하고 속을 꿰면서 잊고 지냈는데 얼마 전 이현주 권사님이 나에게 “기도하고 말하는 것”이라며 “임직 간증문을 꼭 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그 옛날 사라할머니처럼 웃음이 나왔습니다.

바로 “Yes”라고 답했습니다.

내 형편과 내 속으로 했던 말, 숨소리조차도 놓치지 않으시는 세미하신 하나님, 내 속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어찌 내가 사랑하고 신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걱정하고 무슨 일들에 낙심하겠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아노니 오직 나는 잠잠히 기도하리라.’

이 모든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돌려드립니다. ☺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김한보 장로



저는 1981년 열여섯 살에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 왔습니다. 처음 미국에 왔을 때에는 새로운 환경에서 공부해야 되고 마음의 준비 없이 갑자기 미국에 오게 되어서 모든 것이 백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1983년에 참 말씀을 찾아서 영생장로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 찬양대 지휘자로도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찬양대원으로 고등학생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찬양은 저의 신앙생활에 힘이 되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이민자 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제 나이 또래도 별로 없어서 여전히 외롭고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더욱 더 주님에게 의지하고 기대었던 것 같습니다. 신약시대에 초대교회에 모여서 서로 음식을 나누며 기도하며 부흥하였듯이 저희 교회도 가족과 같이 모여서 말씀으로 배우며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저의 집사람은 교회 청년부에서 이층 창 대회를 통하여 만나서 결혼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아들을 주시고 저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제가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먹을 것 또는 거할 것으로 걱정 안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에 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필라델피아가 저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그러나

제가 필라델피아를 고향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저의 신앙을 키워온 영생장로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지만 부끄럽게도 저의 신앙생활은 삶에 분주함을 핑계 삼아 주일만 열심히 지키는 주님을 잠시 접어두는 미지근한 교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저에게 다시 가슴을 뜨겁게 해주시고 신앙을 회복케 해준 것은 전도 폭발훈련이었습니다. 2009년 전도폭발 훈련을 통하여 많은 좋은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좀 더 가깝게 하게 해주시고 기도도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직 부족한데도 이번 임직식을 통하여 저에게 장로의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측량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신실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죽도록 충성하심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기도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원합니다. 물론 이 일을 잘 할 수

“

아직 부족한데도 이번 임직식을 통하여 저에게 장로의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측량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신실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죽도록 충성하심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기도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원합니다.

”

있을까 하는 부담감이 어깨를 짓누르지만 주님만 의지하며 묵묵히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영생장로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더욱 복음화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



전도회별 찬양축제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호탄을 쏜 제29회 전도회별 찬양축제는 30년을 바라보는 전통의 찬양축제답게 열기로 가득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제1 예배당에서 열린 찬양축제에는 총 17개 팀 256명이 참가해 열띤 경합을 벌였다. 각 전도회는 심사위원들의 눈에 들기 위해 안무와 의상, 소품 등으로 무장, 한 달 이상 갈고 닦은 실력을 여지없이 뽐냈다. 이런 노력 때문인지 어느 때보다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였다.

찬

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호탄을 쏜 제29

회 전도회별 찬양축제는 30년을 바라보는 전통의 찬양축제답게 열기로 가득했다.

엘리아전도회 주최로 11월 5일





이삭전도회



이삭전도회



마르다전도회



마르다전도회



리브가전도회

이날 찬양축제에서는 '믿음은'이란 곡을 들고 나온 다비다전도회가 대상을 차지했다. 좋은 선곡에다 음정, 박자, 안무 등 3박자가 맞아떨어진 것이 수상 배경이었다. 이로써 다비다전도회는 27, 28회 찬양축제를 포함해 내리 3차례나 대상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어 사랑상은 에스더전도회, 소망상은 루디아전도회가 수상했으며 믿음상은 여호수아전도회, 화평상은 마르다전도회, 충성상은 엘리사벳전도회, 희락상은 드보라전도회, 자비상은 청년부, 온유상은 한나전도회가 각각 차지했다.

이날 찬양축제에서는 한나전도회와 여호수아전도회가 단연 돋보였다. 한나전도회는 60대 후반의 나이가 무색하게 하와이풍의 의상



리브가전도회



에녹전도회



에녹전도회

을 갖춰 입고 전영숙 권사의 리드로 화려한 율동을 선사했고 40대로 구성된 여호수아전도회는 레게 스타일 머리와 선글라스, 나비넥타이 등의 소품으로 무장해 '내 영혼이 은총 입을'을 다이내믹하게 편곡해 불러 장내의 인기를 독차지했다.

아울러 기타는 물론 트라이앵글, 탬버린 등 다양한 악기가 등장한 것도 이번 축제의 특색 중 하나였다. 특히 엘리야전도회의 박형선 장로는 실린더 모양의 타악기를 들고



한나전도회



한나전도회



엘리아전도회



엘리아전도회



드보라전도회



드보라전도회

나와 이채를 띠었다. 포르투갈어로 '표주박'이란 뜻을 가진 카바사라는 라틴 타악기였다.

이번 찬양축제에는 평소와는 다른 의미 있는 장면도 연출됐다. 칠순을 넘긴 이삭전도회원들이 '파송의 노래'를 부를 때 2주 후 선교사

기는 듯 관객석에서 일어나 시종 함께 했다. 팔순을 바라보는 엘리사벳전도회가 노래를 끝내고 무대에서 내려올 때 백운영 담임목사와 정승환 차기 담임목사가 함께 나가 이들을 부축하는 아름다운 모습도 눈에 띄었다.



다비다전도회

로 재파송되는 백운영 담임목사가 마치 자기를 위해 불러주는 찬송으로 여

박혜란 권사는 시상에 앞서 심사를 통해 "심사와 지휘 둘 중 하나를 고르라면 지휘를 선택하겠다"며 심사위원으로서의 고충을 에둘러 밝힌 뒤 "모두 만점을 주고 싶을 정도로 준비를 많이 한 것 같



다비다전도회



다비다전도회

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정승환 차기 담임목사는 “오늘 처음 참석해 본 영생장로교회의 찬양축제는 단언컨대 북미 최고인 것 같다”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찬양 축제였다”고 극찬했다.



루디아전도회



여호수아전도회



여호수아전도회



에스더전도회



에스더전도회



청년부

이에 앞서 장인하 장로의 사회로 열린 1부 예배에서는 백운영 담임목사가 ‘선택된 백성’(시 33:11-12)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축제가 되게 해 달라”며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재롱부리는 날”이라고 했다.

장인하 엘리야전도회 회장은 “각 전도회 회원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마련한 찬양축제이니 만큼 하나님과 우리들 모두에게 기쁨이 넘치는 찬양축제로 마무리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별찬양 하는 한어중고등부



특별찬양 하는 KCM



엘리야전도회원들을 부축하는 백운영, 경승환 목사

[신앙간증]



일본일초라도 쓰이는 마른 막대기

박중덕 집사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딤후 2:15)

삶의 뒤안길을 조용히 살필진대 실로 냄새 나는 뒤업으로 얽히고설킨 처절함과 주님 앞에 섰을 때의 난감한 무례를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보잘 것 없는 가슴은 어느 한 순간 초차 눈을 바로 들 수 없기에 그냥 하얀 눈물 이기만 하였다. 기나긴 여정이라 짧은 주님의 시간대에 어설픈 변명들은 가차 없는 치욕으로 아픔을 토로하며 그대로의 꺼꾸러짐에 그리도 자연스러울 수가 없었고 결국 반전의 후반전은 그분의 손바닥에 포근한 안착이었다.

어느 한참전의 신년 금식기도회를 시작으로 아마도 그분의 음성은 작은 가슴에 메아리로 늘 맴돌았다. 금식기도 둘째 날 오전 이용걸 목사가 “박 집사는 신학을 하는 게 어땠겠어”라고 느닷없이 물으셨다. 무심코 우연한 내뱃음은 아닌 듯 머뭇거리며 맴도는 고개 숙임은 삶의 현실이란 핑계를 힘입어 무진으로 긍정의 부분을 빠져 나가고 있었다. 그 뒤로는 늘 생각만의 가벼움으로 무거운 마음을 지탱하며 떨군 고개로 현실을 주워 담았고 계속되는 일상을 온 몸으로 세웠다.

지금 돌아보면 중간 중간 확실한 보여줌으로 청사진을 제시하셨지만 우매한 인생은 둔탁한 이음새로 몽툰한 삶을 설계해 나갔다. 첫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 낳기 전 4년간의 공백, 심리학(templ대학)을 마친 후 언젠가는 신학교에 들어가 연결하리라 등 막연한 나만의 탁상공론은 어느 덧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고 불혹과 지천명을 지나 이순으로 달려간다. 50대 후반을 지나며 지천명의 기운으로 귀를 순하게 하는 이순으로 접어들며 마음의 눈을 크게 뜨게 된다.

막막한 뒤죽박죽으로 어수선한 상황들은 한없이 밀려오는 부르짖음의 고백을 호흡의 연장으로 선택하며 3년 전

메릴랜드 안나산 기도원을 찾게 됐다. 연세 많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2박 3일의 두 손, 두 무릎으로 주님을 바라보았다. 첫날 저녁 늦게 기도원에 도착한 저와 어머니를 보시고 원장 목사님께서 저를 향해 내던지신 그 한마디는 “주의 일을 하실 분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였다. 그 순간 온 머리가 하얘지며 무언가에 얻어맞은 듯한 두려움이 지금까지 생각만으로 피상적인 나태함에 빠져 있던 우유부단한 게으름을 일침으로 흔들어 깨웠다.

일면식이 없었던 원장 목사님의 한마디는 오랜 세월의 주님의 음성으로, 메말랐던 가슴을 흠뻑 적시며 뜨거운 고백으로 납작 엎드리게 하였다. 심지어 90을 훨씬 넘으신 어머니도 반대하며 말리셨던 길이었지만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은 더 이상의 창피가 아닌 주님의 너그러운 사랑이었다. 기도하는 가운데 늘 마음으로, 부끄러움으로 몸 둘 바를 몰라 했던 질문들이 있다.

‘지금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선다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리오?’

신학교에 들어갈 때 인터뷰에서도 난 고백했다. “마른 막대기가 일본일초라도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2022년 봄 학기를 시작으로 벌써 네 번째 학기를 은혜로 받들게 됐다. 학기 때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몸소 체험하며 자격 없는 연약한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날 날이 고백하는 솔직한 엎드림이 결국은 버팀목이 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 앞에 내딛게 됐다. 내가 할 수 없음을 불리며 지극히 연약한 질그릇으로 빈 그릇이 되어갈 때 정금으로 거듭나 일본일초의 마른 막대기가 될 수 있으리라 믿고 확신하며 오늘도 부족한 무릎으로 주님 앞에 엎드린다.

‘주님 써주소서! 사용하소서! 마른 막대기가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SNS로 전하는 주님의 향기

김경희 집사 · 새생명훈련 51기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믿는 집안의 자녀도 아니었지만 중·고등학교 시절에 부활절과 크리스마스가 되면 연중행사로 친구를 따라 교회에 나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생 시절에 만난 지금의 남편의 인도로 교회의 문턱을 자연스럽게 넘게 되었고 결혼 후에 세례를 받고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음악을 전공한 저와 남편은 미국으로 유학 오기 전부터 교회 오케스트라와 찬양대에서 봉사하였고 미국에 와서도 찬양 사역을 사명으로 알고 지금까지 주어진 자리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미국에 온 지 20

여년이 지난 어느 날, 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았던 새생명훈련에 우연찮게 참가하게 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습관적이고 안일한 신앙생활을 해오던 저의 마음에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생명의 물이 스며들어왔습니다.

새생명훈련을 통하여 사영리에 대해 배우고 교육받으며 전도 대상자를 찾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먼저 저의 영혼상태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알고 지내온 믿지 않는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에 많이 긴장되고 설레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12주간의 훈련을 통하여 신기하게도 사영리를 전할 용기가 났고 또한 성령님의 인도

하심을 체험하며 오직 믿음으로 사영리를 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새생명훈련 당시 저의 전도 대상자 세 명 모두는 결혼을 앞두고나 결혼할 시기에 있는 30대 초반의 자매들이었습니다. 제가 결혼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던 것처럼 이 자매들도 새 가정을 꾸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도대상자를 정한 날로부터 하루도 빠짐 없이 주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한 자매를 전도하면 그 배우자도 함께 전도할 기회가 되니 '바이 윈 윈 프리'의 세일 상품처럼 일석이조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전도에 대한 기대도 컸습니다. 훈련을 거의 마치는 시점에 필리핀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한 자매와 안부 연락을 주고받다가 드디어 줌으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되었고 열두시간의 시차를 극복하고 필리핀 현지 시간 새벽 2시에 두 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사영리 말씀을 전하였고 주님을 영접케 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또 지난해 8월에 결혼을 한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자매 역시 줌을 통해 사영리를 전하였고 예수님의 영접을 재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 또한 사영리를 전하며 개인적으로 천국 소망에 대한 확신을 거듭 가지게 되었으며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라 여기며 참 신앙인으로 살아야겠다고 다짐했

대면 모임이 힘든 시기에 훈련을 받게 된 것도, 서로 다른 나라에 살면서 가끔 SNS 상으로 소통하는 게 전부였던 지인들에게 사영리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시기에 주어진 것도, 공간의 한계를 뛰어 넘어 삶의 지경을 넓히고 전도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습니다.

저야 말로 코로나 시대의 최대 수혜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면 모임이 힘든 시기에 훈련을 받게 된 것도, 서로 다른 나라에 살면서 가끔 SNS 상으로 소통하는 게 전부였던 지인들에게 사영리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시기에 주어진 것도, 공간의 한계를 뛰어 넘어 삶의 지경을 넓히고 전도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3단계 훈련까지 참여하는 동안 영적, 육적,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롯이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셨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귀한 말씀과 성령 충만한 강의로 마음에 큰 감동을 주신 강사님들 그리고 영적으로 잘 인도해 주시고 늘 기도로 함께 해 주신 순장님을 비롯한 새생명훈련원 간사님들과 기도 후원자 다섯 분의 중보 기도의 힘과 능력에 힘입어 훈련과정을 잘 마칠 수 있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훈련을 통해 받은 감동과 은혜 잊지 않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되뇌며 더욱 베풀고 배려하는 삶,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만난 하나님

조나단 성도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랑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해 주시던 게 “너는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나님이 너를 살리셨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였습니다. 왜냐고 물어봤을 때 부모님이 하시던 말씀들이 “너는 한 달 넘게 일찍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시력이 좋지 않아서 눈에 주사도 많이 맞고, 많이 울기도 하고, 폐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코에다가 튜브를 넣기도 하고는 했습니다. 하도 오랜 시간 그렇게 병원에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사선생님이 부모님에게 와서 “아드님이 더 이상 못 살 것 같다”고 하시면서 무슨 서류를 내밀며 사인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서류는 ‘더 이상 희

망이 없으니 그냥 연구하는 데에 사용해도 된다’는 동의서였습니다. 부모님은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된다”고 그러시면서 그때부터 더 많이 같이 기도를 하시게 됐습니다. 다른 목사님들도 오시면 기도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사선생님이 “아드님이 눈에 시력이 생기기 시작했고 폐도 잘 작동한다”며 엄청 놀라시면서 저희 부모님한테 “이건 기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 소식에 기뻐 우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날 바로 저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의사선생님이 말씀하기를 살아가면서 평생 운동하는 거는 무리일 것 같다고 하셨지만 의사선생님 말과는 다르게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에 다닐 때까지 학교 운동팀에서 활동

을 했습니다.

저와 하나님의 만남이 드라마틱하게 시작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웬지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갔습니다. 교회 가는 것 자체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필라델피아 어느 교회가 알래스카로 가는 수련회가 있는데 가보지 않겠나” 하고 물었습니다.

그 날 어머니랑 저는 한바탕 했습니다. 새벽이 다다를 때까지 “절대로 안 간다”면서 싸웠는데 결국엔 그 다음날 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모르는 교회 사람들이랑 와서 진짜 싫었는데 거기서 일주일 지내면서 서로 친해지고 은혜를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찬양을 부르던 중에 저도 모르게 온몸에서 소름이 돋으면서 찬양하면서 울컥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울었습니다. 같이 간증하는 시간을 나눌 때 제가 가진 아픔들을 다 털어놓고 울면서 회개하고 나니 오랜만에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뭔가 답답하게 했던 게 다 내려간 느낌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와이프(신가연)를 만나게 됐습니다. 와이프를 알게 되면서 너무 신기하게도 와이프랑 제가 살아왔던 길이랑 상처가 너무 비슷했습니다. 그런걸 보면서 다 이게 하나님이 뜻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와 와이프를 만나게 해서 서로 위로해 주고 도와주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라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그곳에서 찬양을 부르던 중에 저도 모르게 온몸에서 소름이 돋으면서 찬양하면서 울컥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울었습니다. 같이 간증하는 시간을 나눌 때 제가 가진 아픔들을 다 털어놓고 울면서 회개하고 나니 오랜만에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같았습니다.

같이 살게 되면서 그 과정이 많이 힘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보면 다 잘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 새 교회를 찾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영생장로교회로 오게 해주신 것도 그 하나님입니다. 교회 등록 후에 목양위원회에서 영생반 교육을 받았습니다. 8주간의 교육을 통해 신앙의 기초를 재정립하고 교회에 정착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는 부서를 찾던 중에 에이니스 찬양팀에서 베이스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유년부에서도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줄 수 있는 선생님이로 사용하여 하나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향한 사랑 ♡ 복음 듣는 마음

박상희 집사

8명의 전폭 훈련자들이 과테말라 치말테낭고 임상훈련에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떠나기 전 전승현 장로님, 김한보 집사님의 권면으로 함께 가게 되었지만 과테말라의 현재 정치적인 상황이나 여러 상황들을 인터넷으로 서치해 보기도 하며 겁을 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자연스럽게 없애주셨습니다.

복음제시 부분을 훈련자 분들과 분배하여 암기하고 준비를 하고 또 여러 사역들, 복음제시, 안경사역과 약품전달, 아이들을 위한 크래프트와 선물 등을 준비하는 과정도 함께 하며 정말 이제 과테말라에 가는 날이 눈앞에 다가왔구나 하고 실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경유해서 도착한 과테말라 시티의 공항에서 밴을 타고 2시간 넘게 운전해서 도착한 치말테낭고의 공기는 시티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물론 처음엔 좀 낯설었지만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우리 선교사님 부부와 함께 간 우리 전폭 식구들과 협력하여 하루하루 그 곳의 상황을 눈으로 직접 보며 현지인들의 일상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도착한 다음날 주일에 함께 그 곳의 현지인들과 함



께 예배하며 그 분들의 예배의 분위기는 또 새롭게 다가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다정하게 다가가 인사하고 안아주는 것만으로 말은 통하지 않지만 우리는 주님의 형제 자매됨을 제 마음속 깊이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크래프트하며 주님을 전하고 선물을 주며 어린 영혼들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을 전하는 것이 또한 귀하고 값진 일이라 느꼈습니다. 또 학교를 둘러보며 미국보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 곳의 아이들을 보며 누구보다 순수한 아이들의 눈동자가 참 예쁘게만 보였습니다.

9월 4일 신학생들이 학교에 방문하여 전도폭발의 복음제시와 각 단계별 강의를 듣고 난 후 신학생들과 저희 전폭 팀원들이 함께 5개정도로 팀으로 섞여 나누어 학교 주변에 있는 곳으로 현장전도를 나갔습니다. 그 곳의 신학생들을 필두로 저희들이 찾아가던 전도현장에서 목사님 못지않게 거룩한 권위와 담대함으로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며 숙연한 마음이 들었고 그들의 영혼이 참으로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또 현지인들이 생계를 유지하며 열악하고도 바쁜 삶속에서도 다들 거부감 없이 복음을 듣는 모습에 마음만은 우리보다 여유가 많은 온화하고 친절하고 민중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미국보다는 정말 열악하고 환경도 좋지 못하지만 그들은 마음만은 우리보다 부자 같았습니다.

5일 또 그 곳의 학교 선생님들과 어린 학생들에게 전폭 팀이 복음제시와 강의를 했을 때 모두 집중하며 듣고 함께 식사를 하며 마음의 선물들을 했을 때 모두 즐거워하고 기뻐함이 저희들도 모두 기뻐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준비해 간 찬양과 스페인어로 준비해 간 찬양도 주님께 영광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6일 과테말라의 시티의 가장 큰 한인교회를 방문해 복음제시와 강의를 하고 질의응답도 받으며 그 곳에서 전도폭

발훈련을 전혀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많았고 전도폭발 훈련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음을 보며 체계적인 전도 훈련이 필요한 곳이거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가족과 같은 저희 한인 이민자 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친교를 나누며 고국을 떠나 그 곳에서 오랜 세월 정착해 열심히 사시는 그 분들의 마음도 저희들과 같은 한마음으로 느껴졌습니다.

이후에 다리 밑의 교회 계용완 선교사님이 하시는 곳을 또한 방문했을 때 정말 지구상에 이런 곳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한없이 다리 밑으로 계단이 이어져 있고 그곳에서 안경사역과 약품 전달, 아이들에게 회충약도 먹이고 크래프트 모든 사역이 그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사역이었으며 아이들은 피부색도 다르며 다른 인종인 저희들에게 많이 호의적이고 좋아해 주어 사역을 더욱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남들은 다 하지 않는 정말 오지 같은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는 계용완 선교사님과 그를 돕는 아들까지 존경스러운 분들이었습니다. 항상 저희가 묵는 치말테낭고에서 밴을 타고 기본 2시간정도 이동하고 시티에 오면 매연도 심해 나중엔 두통도 왔지만 다행히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곳에서의 마지막 날 밴을 타고 1시간 넘게 이동하여 도착한 새로운 학교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재영 집사님이 그 곳에서 다리를 헧디며 다치긴 했지만 서로 도우며 더욱 돈독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다행히 여러 처방 끝에 많이 나아져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많은 준비로 떠나기 전부터 수고해 주신 나선희 집사님과 팀장으로 수고해 주신 김한보 집사님, 회계로 밤늦게까지 불을 켜고 방에서 수고해 주신 이재영 집사님, 누구보다 솔선수범하며 곳은일도 마다하지 않으신 이창호 집사님, 가장 연장자로서 진두지휘해 주신 전승현 장로님과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박운 목사님, 또 항상 다정

나이로 보나 또 전폭 내에서 연륜이 가장 짧은 막내로서 다른 훈련자 분들의 많은 배려를 받아 이 시간을 통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임재하심이 저희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며 우리는 보잘 것 없지만 주님의 도구로서 그 곳에서 꿈이 없고 소망 없는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다가오 소망이 되시고 치료와 안식을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하게 우리 모든 팀원들의 벗이 되어주신 임미화 사모님, 모두 저에게는 본받을 것 밖에는 없는 귀하고 귀한 어른 들이었습니다.

나이로 보나 또 전폭 내에서 연륜이 가장 짧은 막내로서 다른 훈련자 분들의 많은 배려를 받아 이 시간을 통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임재하심이 저희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며 우리는 보잘 것 없지만 주님의 도구로서 그 곳에서 꿈이 없고 소망 없는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다가오 소망이 되시고 치료와 안식을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





성경, 달고 오묘한 말씀

최자경 집사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최초로 발견된 코로나바이러스는 급속하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1월에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하였으며 이어 3월에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이란 질병을 범세계적인 유행병(Pandemic)으로 격상시키는 사태에 이르렀다.

교회는 팬데믹으로 인하여 급기야 주일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려야 하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였고 백신도, 치료약도 전무했던 그 당시에는 필요불가결한 외출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바깥 출입을 자제하고 오직 마스크 하나에만 각자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해야만 했던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난감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다.

2020년 3월부터 영생장로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기회를 맞이하여 전교인성경읽기를 실천하자는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나는 4월 14일부터 창세기를 시작으로 주일을 제외한 주 6일간 하루 평균 20장 내지는 25장 정도를 읽어 내려갔다. 그렇게 읽는 분량으로 했을 때 신약성경은 7~8일, 구약성경은 28~32일 정도면 1독을 마칠 수가 있었으며 2020년에는 6독을, 2021년에는 7독을, 2022년에는 9독을 각각 통독한바가 있다. 이런 결과로 2022년 연말에는 담임목사님으로부터 성경통독상을 받기도 했다. 그 후로도 성경일기를 계속하여 팬데믹 이후로 올 9월말까지 총 31회를 읽게 되었다.

이제는 감사하게도 어느 듯 성경을 읽는 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서 일상생활의 가장 중심을 이루며 생활화되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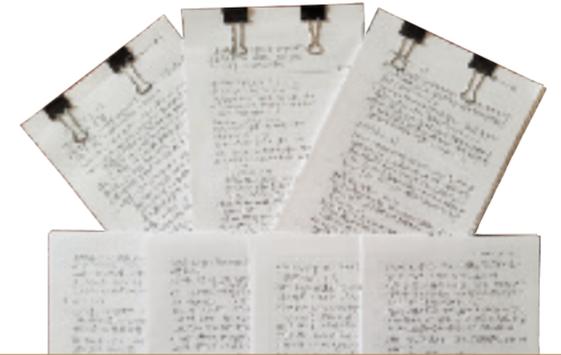
2023년 10월 현재는 지난 9월 29일까지 지난해와 같이 신·구약 9독을 마치고 신약성경을 9월 30일부터 10번째 읽고 있다. 신·구약 성경통독을 하면서 가장 짧게는 지난해 5월에 27번째 읽기를 마쳤을 때 신약을 7일, 구약을 15일에 완독하므로 22일 만에 신·구약 전체 읽기를 마치기도 했다. 그리고 올해 아홉 번까지 신·구약 성경을 통독한 평균 일수는 27일이 소요되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시 119:103)라는 말씀처럼, 그리고 '달고 오묘한 말씀' (찬송가 200장)의 찬송가의 가사처럼 내게는 정말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어 하루 생활의 중심이 말씀 읽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은퇴 이후의 삶이 대부분 지루하다고들 하지 마는 나 같은 경우에는 성경말씀을 읽는 시간이 참 즐겁고 기다려진다.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 기도를 드린 후에 앉은 자리에서 한 시간 동안 성경을 읽으면 대략 10장 정도를 읽게 된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틈틈이 나머지 10장 내지 20장을 읽으면 30일 전후에 신·구약 1독을 마치게 된다.

성경을 읽으면서 단순히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특별히 은혜로운 말씀은 밑줄을 그으며 읽고, 밑줄이 그어져 있는 말씀을 다시 말씀노트에 다 옮겨 쓰고, 또 그 내용을 컴퓨터에 파일을 만들어서 계속하여 내용을 추가해 만들어 간다. 그래서 1)은혜의 말씀(신약과 구약) 2)테마로 이해하는 하나님의 말씀(신약과 구약) 3)줄거리 성경(신약과 구약) 등 6개의 파일을 만들어 그 내용을 점차 늘여가고 있다. 그리고 이 파일들은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과 공유할 것이며 후일에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목적이 무엇인냐고 묻는다면 나는 베드로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 위해서' (벧후 3:18)라고 말해 주고 싶다. 아울러 성경을 읽게 되면 주일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평소에 몰랐던 부분들이 강해가 되어 깊은 이해로 다가올 뿐 아니라 당시의 말씀의 배경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면서 소가 여물을 먹고 되새김질을 하듯이 읽었던 말씀들을 다시 묵상하게 되는 되새김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목적이 무엇인냐고 묻는다면 나는 베드로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 위해서' (벧후 3:18)라고 말해 주고 싶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 73:28),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 8:10),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84:5) 등등의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성경을 읽으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음성과 다윗과 모세를 비롯한 믿음의 선진들이 보인 신앙의 발자취를,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바울의 열정적인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가르침이 늘 마음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영적인 든든함이 마음 중심에 있다.

그리고 나의 성경읽기를 듣고 주변의 사람들이 도전받고 자신도 성경읽기를 힘써야겠다고 다짐하는 말들을 들을 때 또 다른 보람을 느끼곤 한다.

끝으로 매일매일 성경을 꾸준히 읽을 수 있는 믿음과 의지를 주시고 지금까지 밝은 시력과 건강을 주신 모든 것들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다. 이 모든 은혜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믿는 자의 천국 소망

이현주 권사

하 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고 하셨기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사랑하는 세 분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2007년 3월 말 햇살이 유난히 밝았던 금요일에 또 시작된 하루의 일상을 깨고 한국의 언니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엄마가 교통사고로 위독하니 가능한 빨리 오라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건강하시던 70세의 엄마가 새벽기도회에 참석하시다가 차에 치여 죽음을 눈앞에 두었다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여권을 만들고 그 날 밤 비행기를 타기 위해 뉴욕 JFK 공항에 갔지만 대기 순서를 기다리던 저의 순서는 오지 않았고 결국 다음날 비행기를 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엄마의 임종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새벽기도회에 가시던 엄마를 하나님께서는 데리고 가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면서 믿음이 작은 저에게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새벽기도회 가시는 길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러 가게 된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드리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뒤 엄마 방의 소박한 책상에는 매일 보시던 성경과 Q1 노트가 사고 전날로 끝이 나 있었습니다. 작은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빼곡히

적혀있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고단한 삶을 접고 천국에서 평안하게 계실 엄마에 대한 확신이 생기며 세월이 갈수록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오히려 감사로 이어졌습니다.

2019년, 건강하시던 시아버님(김오한 장로)께서 병을 이기지 못하고 그 해 크리스마스에 처음 입원하신 후 1년 동안의 투병 생활은 결코 쉽지 않은 하루 하루였습니다. 곰팡이 균이 뇌로 감염되었다는 특이한 병으로 식도로 음식을 삼키지 못하고 위에 튜브를 끼워 밤새 음식을 주입해야만 했던 아버님은 날로 쇠약해져 가셨고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뇌수술까지도 받으셔야 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도 약해지셔서 쉽게 움직이지 못하시던 분이 2020년 12월 초 차를 타고 나가신 뒤 어둠살이 들어서도 돌아오지 않으셔서 남편과 저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무작정 온 동네를 헤매며 아버님을 찾아다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에서 1시간 30분 거리의 외진 곳에서 교통사고로 응급실에서 긴급 수술을 받으실 상황이라는 소식을 경찰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국면에서 면회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홀로 병실에서 의식도 없이 3주 정도를 버티시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크리스마스 날 아버님은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온 식구가 아버님을 위해 기도하며 열심히 간병을 하던 중에 황망하게도

사고로 아버님이 우리 곁을 떠나신 것이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팬데믹 중에도 생각지 못했던 많은 성도님들이 장례식에 참석해주셨고 목사님의 말씀에 너무도 큰 깨달음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버님의 죽음은 다른 아무 이유가 아닌,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라는 말씀 천국에서 만날 웃으시는 아버님을 기대해 봅니다.

2023년, 사랑하는 나의 친구이자 의지하는 신앙의 언니 강옥향 사모님이 올해 초 본인 생일을 며칠 앞두고 그리 원하던 천국으로 갔습니다. 2020년 봄 항상 활기에 넘치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던 강 사모가 "폐암 4기의 진단을 받았다"며 나를 안고 울던 순간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3년간 우리는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함께 하는 시간을 이어갔습니다. 남편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천국에 대한 얘기를 나에게 자주 들려주곤 했습니다. 천국에 대한 굳은 소망이 있었기에 힘든 투병시간 가운데서도 밝게, 감사함으로 견디는 모습이 믿음이 부족한 저에게 오히려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주위의 많은 성도님들의 귀한 사랑을 받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누며 함께 했던 추억들은 내 삶의 큰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성도 간에 좋은 관계가 깨지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에 마음 아파하며 화해를 위한 기도를 하며 안타까워도 했습니다. 큰 통증으로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

앞으로도 내겐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떠나보내야 할 순간들이 오고 또 나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로 부터 떠나야 하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고통 없이 평안하게 마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지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며 시편 성경을 암송하며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 전해주려고 애쓰던 모습은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죽음을 앞둔 모든 주위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내겐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떠나보내야 할 순간들이 오고 또 나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로 부터 떠나야 하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고통 없이 평안하게 마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지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

담대하라 Tharseo

주영돈 장로



하트마 간디)

먼 거리로 싱싱한 물고기를 운반할 때 보통 어항 속에 메기를 넣는다고 한다. 물고기들은 메기에게 잡혀 먹히지

않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 달아나야 살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 때문에 싱싱한 생선을 음식점으로 운반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에게 꿈이 없으면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게 된다. 꿈꾸기를 멈추는 순간 당신은 방향을 잃게된다. 더 이상 목표를 세우지 않을 때 성장은 멈춘다.

우리에게 꿈이 없으면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게 된다. 꿈꾸기를 멈추는 순간 당신은 방향을 잃게된다. 더 이상 목표를 세우지 않을 때 성장은 멈춘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성장하도록 지으셨다. 그분은 우리가 더 뻗어나가고 발전하며 꿈꾸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성장하도록 지으셨다. 그분은 우리가 더 뻗어나가고 발전하며 꿈꾸기를 원하

연말이 되면 지난해 다 이루지 못한 일, 실수한 일들 때문에 후회하거나 과거에 아름다웠던 추억을 기억하며 과거에 사로잡혀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와 같이 다시 이를 수 없음을 한탄하고 후회하며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들은 백미러만 보고 운전하는 사람과 같다.

앞을 보지 않고 뒤만 보며 운전하게 되면 언젠가 충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나간 일, 후회스런 기억들에 자꾸 물을 주지 말라. 이것들이 결국 지금의 나를 앞으로 더 나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축구경기에서 게임이 거의 끝나가는데도 골을 넣지 못하고 있다고 게임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사력을 다해 끝까지 공격하지 않으면 볼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골을 넣을 기회마저 놓치게 된다.

힘들고 지쳐도 자전거 페달을 밟아야 앞으로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넘어지지도 않는다.

‘내가 내일 죽는 것처럼 살라. 그대가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라.’(마

신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들이 목적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한 채 어정쩡한 태도로 살아가기를 바라지 않으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 33:3)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삶을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원대한 포부를 갖기를 원하신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말라. 무엇을 하든지 포기하지 말라. 당신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것을 확실히 잡으라. 사람은 세월만으로 나이가 들지 않는다. 끝없는 변화와 도전, 성장을 포기하는 순간 퇴화는 시작된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것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걸라.

‘시도해 보지 않고는 누구도 자신이 얼마만큼 해낼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푸블릴리우스 시루스)

우리는 종종 두려움과 겸손을 혼동하고 있다. 자기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겸손이라 생각한다. 그것은 겸손이 아니다. 그것은 두려움이다. 믿음이 부족한 것이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33)

여기서 ‘담대하라’는 헬라어로 ‘Tharseo’ 다. 타르세오는 담대하라

외에도 ‘즐거워하라’, ‘용기를 가지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시면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만일 당신에게 믿음이 있다면 자신에게 없는 다른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은 당신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실 것이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 9:2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 33:3)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삶을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원대한 포부를 갖기를 원하신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말라. 무엇을 하든지 포기하지 말라. 당신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것을 확실히 잡으라.

사람은 세월만으로 나이가 들지 않는다. 끝없는 변화와 도전, 성장을 포기하는 순간 퇴화는 시작된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것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걸라.

‘당신은 다른 목표를 세우거나 새로운 꿈을 꾸기에는 여전히 젊다 (You are never too old to set another goal or to dream a new dream).(C. S. 루이스)

‘뜻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빌 3:14)

끝이 좋은 사람들의 끝없는 선행

최유섭 장로



몇 주 전 아들이 LA 근교로 이사한다고 “한 2주간 자기의 두 아이를 돌보아줄 수 있느냐”고 물어와 기꺼이 승낙하고 베이비 시팅 잡을 위해 그곳을 다녀왔다.

그곳에 있던 중에 뉴욕에 사는 딸 가족이 LA 근처로 휴가 삼아 일주일간 에어 비앤비에 머물며 우리와 합류했다. 어느 하루는 딸 아이가 우리 부부와 다섯 살짜리 조카(아들의 둘째 딸)를 데리고 어디로 가자고 했다. 우린 “어디로 가냐” 묻지도 못한 채 얼떨결에 따라나섰다.

차로 25분 정도 달려 지하주차장에 파킹하고 조그마한 열차를 타고 내리니 예술미 넘치는 아름다운 현대식 건물이 눈앞에 펼쳐졌다. 건물 앞에는 ‘게티 센터’라고 쓰여 있었고 기증자는 조그맣게 폴 게티라고 쓰여 있었다. 아트박물관 같은데 입장료는 무료라고 하니 믿기지 않았다. 이렇게 공짜 관람을 시켜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가 궁금해졌다.

고마운 사람 폴 겐티? 과묵한 내가 들어본 게티는 게티주유소 간판에 쓰여 있는 게티 밖에는 아는 것이 없는데 혹시 이 게티가 그 사람인가 여러 가지 추측하며 앞에 안내 데스크에 말씀하게 생긴 안내원에게 물어봤다. 여기서야 나를 아는 사람이라고는 아내와 딸, 다섯 살의 손녀밖에 없으니 부끄러울 것도 없었다. 궁금하면 못 참고 물

어보는 성격인 나는 “게티가 누구냐”고 안내원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다. 안내원은 반바지에 발가락들이 보이는 스니커 비슷한 신발을 신고 온 동양 촌놈(?)에게 친절하게 설명하면서도

약간 덜 존경하는 표정으로 설명했다. 그의 설명은 이랬다. 게티는 석유재벌이었고 이 박물관은 그가 소장했던 세계의 유명 미술품들을 세상 사람들을 위해 내놓고 무료로 관람시켜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건물들과 정원, 꽃들도 구경할 수 있게 했다.

그의 설명에 “Thank you” 하며 속으로 ‘석유재벌이라니 나도 그렇게 바닥을 치는 상식의 소유자는 아니구먼’ 하며 득의양양한 표정을 지었다. 기억은 흐리지만 게티주유소에서 한 두어 번 가스를 채운 것은 확실하니 나도 관람할 자격은 조금 있지라고 생각하며 줄을 서서 미술품들을 구경했다. 고흐, 세잔느, 모네, 르노, 피카소 등 내가 좋아하는 화가들의 그림들이 줄줄이 걸려 있었다. 나는 특히 인상파 화가들을 좋아하는데 이유는 중학교 때 엄한 미술선생님 덕분에 얻어맞으면서 외었던 이름이고 그림들이었기 때문이다. 다른 화가들의 그림들도 많이 전시돼 있었지만 크게 감명이 오지 않아 대충 훑어보고는 서둘러 관람을 끝내고 밖으로 나오니 날씨도 좋고 어린 것이 배도 고프다 하여 샌드위치와 마실 것을 사가지고 탁자에 앉았다. 흰색 건물과 아름다

운 정원이 조화를 이룬 모습에 반해 서둘러 점심을 끝내고 잘 가꾸어진 정원을 걷는데 어린 손녀는 “I like it. Amazing.”을 연발했다. 나는 속으로 ‘저 조그마한 것도 뭘 좀 아네’라고 생각했다.

게티는 한 때 미국 제일의 부자였지만 악명 높은 수전노이기도 했다. 돈을 그렇게 아껴도 예술품 구입에는 광적인 사내였다, 세상 사람들의 기억 속에 돈벌레의 대명사로 남아 있지만 그래도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에게 명화와 예술적인 건물, 아름다운 정원을 무료로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됐다. 요즘 유행어로 힐링의 시간을 선사하는 게티는

게티는 한 때 미국 제일의 부자였지만 악명 높은 수전노이기도 했다. 돈을 그렇게 아껴도 예술품 구입에는 광적인 사내였다, 세상 사람들의 기억 속에 돈벌레의 대명사로 남아 있지만 그래도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에게 명화와 예술적인 건물, 아름다운 정원을 무료로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됐다. 요즘 유행어로 힐링의 시간을 선사하는 게티는 처음보다, 과정보다 끝이 좋은 사나이였다.

처음보다, 과정보다 끝이 좋은 사나이였다. 시간되면 다시 찾고 싶은 장소, 더욱이 무료가 썩 마음에 들어서 그는 내게도 고마운 사람이다.

일전에 지인 한 분이 우리 부부를 저녁 식사 모임에 초대한다면서 연어 혹은 필레미뇽 중에 메뉴를 선택해 보내라는 기별이 왔었다. 내 판에는 어느 단체의 그 흔한 후원 모임이겠지 하고 생각하면서도 거절치 못할 상황이라 참석하기로 했다.

다. 은퇴 후 수입이 한정되어 있는 연금 생활자이긴 하지만 식사비는 충당해야지 하면서 지참금으로 한 300달러를 예상했다. 아는 분도 초청을 받았다가 “후원금으로 열

마를 예상하냐” 했더니 “후원금은 필요 없고 주최 측에서 비용을 전담하니 그냥 참석만 하면 된다”고 했다. “그래”라고 반문하면서 내심 저어기 놀랐다. 기브 앤 테이크가 만연한 세상에서 큰 액수는 아니더라도 얼마만큼은 항상 들고 가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

아무튼 참석해 보니 200~300명의 하객들이 운집했다, 나는 재빨리 계산기를 두들겼다. 이 정도의 장소에서의 식사라면 한 사람당 150달러는 족히 될 것으로 보였다. 그럼 참석자들의 중간값인 250명으로 쳐서 150달러 곱하기 250명 하니 3만 7천 500달러나 됐다. 한인들을 위해 기꺼이 내놓는 통 큰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지가 궁금해졌다.

궁금한 마음에 찾아보니 엠코 테크놀로지의 김주진 사장이었다, 서울대 법대 재학 중 펜실베이니아대로 유학했다. 그는 나중에 펜실베이니아대에 2천 500만 달러 기증하기도 했다, 나는 주에 거의 60시간여를 일했어도 100만 달러도 못 벌었는데 2천 500만 달러를 학교에 기증해?

식사 후에 서재필기념재단부터 수상한 김사장의 연설이 끝나자 나는 자신도 모르게 기립박수를 쳤다. 그분의 사생활, 인생관, 인격 이런 것은 나는 모른다. 하나 그런 통 큰 분이 한국인 가운데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나의 진심에서 나오는 기립박수를 받기에 충분조건이었다. 내가 너무 돈의 액수만으로 감동받는 속물인지는 차치하고 그저 마음껏 존경하며 큰 박수를 길게, 크게 보냈다. 300달러 식사에 ‘이 정도의 보답은 해야 되겠지’라는 생각도 들었다.

아! 세상에는 생각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내가 우물 안 개구리였구나 싶었다.

‘솔리스트 앙상블’의 하모니

영생장로교회 핸드벨 · 차임 콰이어가 내년이면 창립 30주년을 맞는다. 부활절과 교회 창립일, 크리스마스 등 특별한 날에는 핸드벨

· 차임 콰이어가 어김없이 등장해 청아한 소리로 성도들을 매료시켜온 지가 30년 세월이라는 이야기다.

핸드벨 · 차임 콰이어는 지휘자 김경희 집사를 비롯해 대원만 무려 22명으로 음악 관련 팀으로는 성가대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인원을 자랑한다. 많은 인원이 포진한 이유는 차임 3옥타브, 핸드벨 5옥타브를 커버해내기 위해서다. 옥타브의 숫자가 클수록 보다 넓은 음역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소리가 깊고 풍부해진다. 미주 한인 교계에서는 5옥타브의 핸드벨을 갖춘 곳을 찾아볼 수 없고 한국 교계에서도 드물 정도로 영생 핸드벨 · 차임 콰이어는 가히 독보적 존재가 아닐 수 없다.

“

스윙, 링, 웨이크 등 다양한 연주 테크닉으로 일사분란한 화음을 이끌어내는 핸드벨 · 차임 콰이어가 12월 첫 주일예배에서 ‘오 신실하신 주’를 봉헌하면서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선사했다. 그 뒤에는 대원들의 ‘신실’한 노력이 숨어있다.

”

높은 옥타브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인원도 인원이지만 혹독한 연습이 필요하다. 김경희 집사는 “한곡의 연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주 1회 한 시간 연습을 기준으로 10~12주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쉽 없는 연습만이 곡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기에 대원들의 연습에 임하는 태도는 자못 진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핸드벨과 차임은 자기가 맡은 소절이 있습니다. 따라서 곡 전체를 이해하면서도 내 음을 내야 하는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창은 설사 어느 대원이 박자를 놓치더라도 물어갈 수 있지만 핸드벨과 차임은 결코 물어갈 수 없기 때문에 연주 내내 결코 긴장의 끈을 늦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솔리스트라는 의미에서 ‘솔리스트 앙상블’이라고도 불립니다.” 김 집사의 말이다.

대장인 김한나 권사는 “팀워크가 어느 음악 그룹보다 중요한 만큼 대원들의 마음을 하나

로 모을 필요가 있는데 이 때 기도와 친교가 큰 역할을 한다”며 “그래서 연습 후에는 이 과정을 빼놓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10주 이상의 연습 기간에는 누구 하나라도 빠지면 바로 ‘핑크’가 나기 때문에 ‘민폐’를 끼칠 수 없다는 생각에 모두들 연습시간만큼은 철저히 지키자는 것이 대원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전용악 집사의 경우 연습기간 중에 골절상을 입고도 연습에서 연주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분위기의 결과다.

총무인 김다혜 집사는 “연습 초기에는 자기 음만 내는데 급급하다가 연습이 거듭될수록 각자의 음들이 모여 하모니를 이뤄가는 과정을 보면서 마치 어떤 마력에 빨려 들어가듯 ‘이것이 핸드벨과 차임만의 매력이구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운다”며 미소지었다.

핸드벨 · 차임 콰이어는 이용걸 원로목사의 아내인 전은애 사모와 김인기 목사가 주축이





김다혜집사, 김경희집사, 김한나권사(왼쪽부터)

돼 1994년에 창설됐다. 영생 선교 33년을 기록한 '증인'에서 전 사모는 "우연히 접한 차임이 값도 싸고 소리도 맑아 선교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교회에 도입하게 됐다"고 술회했다.

전 사모는 2016년 은퇴할 때까지 지휘자로 20여년을 핸드벨·차임 콰이어를 이끌면서 미주 최고의 콰이어로 키운 일등공신이다. 그는 지휘봉을 잡는 동안 주일예배에서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더 높였고 선교 현장에서는 찬양으로 복음의 씨앗을 파종했다.

핸드벨·차임 콰이어가 '따뜻한 봄날' 만들 구가한 것은 아니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핸드벨·차임 콰이어라고 비켜가지 않았다. 팬데믹은 핸드벨·차임 콰이어를 흑한의 한복 판에 서게 했다. 주일예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덩달아 개점휴업일 수밖에 없었다. 핸드벨·차임 콰이어는 '춤'을 입고 기사회생했다. 어느 부활절 예배에서 대원 각자가 맡은 소절을 연주해 춤으로 편집해 영상으로 봉헌함으로써 핸드벨·차임 콰이어를 화려하게 '부활' 시킨 것은 대원 모두에게는 잊히질 않을 순간이었다.

스윙, 링, 웨이크 등 다양한 연주 테크닉으

로 일사분란한 화음을 이끌어내는 핸드벨·차임 콰이어가 12월 첫 주일예배에서 '오 신실하신 주'를 봉헌하면서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선사했다. 그 뒤에는 대원들의 '신실'한 노력이 숨어있다. 



대장 김한나
총무 김다혜
지휘 김경희
대원: 김경미, 김다혜, 김미숙, 김세희, 김정갑, 김한나, 김한보, 나선희, 나영신, 단지영, 문봉애, 박은숙(권사), 박은숙(집사), 손혜진, 심정임, 안주희, 우정화, 이수진, 이재영, 이현주, 전용약



성령이 머무는 핫플레이스, 영생도서관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서관, 영생 성도들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도서관이 되라."

8월 27일 영생장로교회 도서관 오픈하우스에서 백운영 담임목사는 다시 한 번 비상하는 영생도서관이 되기를 소망했다.

한때 영생장로교회 성도들의 지적 쉼터이자 사랑방 구실을 톡톡히 했던 영생도서관이 어느 순간 성도들의 발길이 뜰 끊기는 위기가 찾아왔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결정타였다. 영생도서관의 변신은 위기 속에서 시작됐다.

영생도서관을 관장하는 도서부는 부장인 장자숙 권사를

필두로 박민호 장로, 김금자 집사, 김정남 권사 등 부원들이 주축이 돼 '위기를 기회'로 여기고 대대적인 도서관 정비에 돌입했다. 3~4개월에 걸친 맘을 흘리는 수고 끝에 영생도서관은 완전히 환골탈태했다. 도서관 문을 열면 우선 탁 트인 공간이 열람객들을 맞이한다. 서가가 촘촘히 세워져 있어 안 그래도 좁은 도서관을 더욱 좁게 보이게 했던 전경이 눈에 익었던 성도들로서는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는 것.

"장서만 많다고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장 권사는 이렇게 반문하며 "찾아오는 도서관,



박민호장로, 지창욱장로, 백운영 담임목사(왼쪽부터)

다”고 도서 재배치를 주도했던 박민호 장로는 말했다. 이렇게 해서 남긴 도서는 약 4천여 권이며 이 중에 신앙서적은 30%이고 나머지는 인문, 교양, 역사, 경제, 철학 등 일반 도서관과 진배없을 정도로 다양한 분야의 책들로 말끔히 재정비한 서가에 이를 채워 넣었다는 것.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책들에다 일일이 바코드를 붙이는 등 전산화하는 작업도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해야 하는 일이었다. 이유는 도서 대출 및 반납 작업을 보다 빨리, 보다 수월하게 하는 일은 기본이고 이를 통해 각 도서별 열독율과 도서 이용성도 수 등을 파악할 수도 있어 향후 성도 맞춤형 도서 구입에 참고 자료

로 삼고 다독자 시상 등 성도들을 도서관으로 더 많이 유인할 수 있는 길도 열리기 때문이다. 게다가 영생도서관 앱을 다운받으면 스마트폰으로도 매달 100여권씩 들어오는 신간 도서를 단박에 열람할 수도 있다.

오랜만에 도서관을 찾았다는 한 성도는 “도서관 분위기가 확 바뀌어 다소 놀랐다”며 “책 향기에도 커피향 물씬 풍기고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분위기가 마치 북 카페에 와 있는 느낌”이라며 놀란 입을 다물지 않았다.

이런 노력 때문인지 요즘에는 도서관으로 발걸음을 옮겨 놓는 성도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도서를 대출하는 성도, ‘신간이 뭐가 나왔나’ 하는 표정으로 신간 코너를 기웃거리는 성도, 소파에 푹 파묻혀 책읽기에 열중하는 성도, 서로 커피를 나누며 답소를 나누는 성도 등으로 북적이는 것이 요즘 영생도서관의 풍경이다.

사실 영생도서관은 1989년 개관하자마자 교회 내의 ‘핫 플레이스’였다. 이용걸 당시 담임목사의 전폭적인 지원에 업고 이민사회에서는 좀처럼 접하기 힘든 신앙서적, 교양서적 등 다양한 서적들을 구비해 놓아 읽을거리에 목말라하던 성도들의 구미가 당기게 했던 것이다. 초대 도서

“

“장서만 많다고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장 권사는 이렇게 반문하며 “찾아오는 도서관, 머물 수 있는 도서관으로 만들어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성도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기를 원했다”고 도서관에 변화를 꾀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

머물 수 있는 도서관으로 만들어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성도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기를 원했다”고 도서관에 변화를 꾀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개관 이후 사실상 처음 시도하는 대대적인 도서관 개편에 돌입하면서 첫 작업으로 필요한 책, 불필요한 책을 골라내는 일은 만만치 않은 수고를 요했다. “총 1만여 권에 달하는 소장 도서 가운데 오래된 책, 열람율이 떨어지는 책 등 약 60%인 6천여 권을 슈아내는 작업은 쉽지 않았



김경남 권사, 장자숙 권사(부장), 김금자 권사(왼쪽부터)

실장으로 봉사했던 지창욱 장로는 “이용걸 목사님의 배려로 당시로서는 큰돈인 한 달에 1천달러를 도서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어서 신앙서적, 인문서적 등 분야별로 다양한

신간들을 사들여 서가에 비치해 놓을 수 있었다”며 “요즘처럼 스마트폰이 있는 시절이 아니어서 읽을거리가 궁했던 성도들은 예배 마치면 너도나도 도서관에 들러 한 주간 읽



“

영생도서관은 성도들의 예상 밖의 호응에 고무돼 성도들이 뽑은 ‘베스트셀러’ 등 다양한 행사들을 기획하며 ‘물때’를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다. ‘영생도서관의 변신은 무죄’라는 것이 요즘 교회 내의 중론이다.

”

을 책들을 대어해 가곤 했다”고 회고했다. 그에 따르면 영생도서관은 개관 10년 만에 장서 수가 1만여 권에 이를 정도가 돼 모르긴 몰라도 미 전역 한인 교회 소속 도서관으로는 가장 큰 도서관이었다.

영생도서관은 성도들의 예상 밖의 호응에 고무돼 성도들이 뽑은 ‘베스트셀러’ 등 다양한 행사들을 기획하며 ‘물때’를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다. ‘영생도서관의 변신은 무죄’라는 것이 요즘 교회 내의 중론이다. ☑



영생장학회, 미래 지도자 양성의 산실

영생장학회 장학금이 급격히 고갈되면서 장학회 내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위해 수익사업 활성화나 성도들의 특별헌금 유치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다.

영생장학회는 2016년 이용걸 원로목사가 희사한 전별금 47만달러와 익명의 성도가 출연한 3만달러 등 총 50만달러의 기금으로 출범했다. 영생장학회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장학금 등 총 8개 종류의 장학금을 운용하면서 매년 5만달러를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한인사회의 대표적인 장학회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장학금 종류를 늘리고 금액도 상황 조정하면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풍성해졌지만 장학기금은 반비례로 고갈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다음은 영생장학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희준 장로와의 일문일답이다.

Q. 영생장학회가 한인사회의 대표적인 장학회로 자리 잡았다. 단기간에 괄목성장한 동력은?

A. 아무래도 촘촘히 설계된 다양한 종류의 장학금에다 장학금 규모가 여타 장학회보다 큰 것이 성장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장학금 지급을 위해 신청을 받으면 전국에서 많은 신청서류들이 쇄도하는 것에서 학생들로부터 우리 장학회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생장학회 장학기금이 급격히 고갈되면서 장학회 내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위해 수익사업 활성화나 성도들의 특별헌금 유치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다.

Q. 영생장학회는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나?

A. 우리 장학회가 교회가 베이스인 만큼 차세대 목회자, 선교사들을 집중 육성하는데 뜻을 두고 있기에 신학생, 선교사 자녀 같은 기독교와 관련된 학생들에게 장학 혜택을 주로 주지만 믿는 집안의 학생 등 지역사회 인재 양성에도 소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편당된 장학기금 상황에 맞춰야 하는 애로점도 있지만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피드백 등을 통해 수시로 운용 방법 등을 업데이트해 가며 장학금의 다양화를 꾀하는데 애를 쓰고 있습니다.

Q. 영생장학회가 운용하는 장학금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각 장학금의 특징을 요약해 본다면?

A. 장학금 종류가 모두 8개나 돼 하나하나 설명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에 다른 장학회와 차별화되는 점을 몇 가지 소개해 볼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영생 장학생'이 되려면 크리스천이면서 미래의 지도자를 꿈꾸는 지역 학생이나 목사 또는 선교사 자녀로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는 학생, 난민 신분의 학생 등에게 적게는 1천달러에서 많게는 2천500달러까지 지급합니다. 특히 꾸준히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단발이 아니라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혜택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Q. 재원이 부족하다면서도 신설하는 장학금도 있던데?

A. 디모데 장학금, 핫보로-호삼 하이스쿨 장학금 등이 있는데 기존 장학금으로는 자칫 소외될 수도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새로 만들게 됐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한다는 기본 정신 아래 지역 인재를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난민 같은 소외계층을 위해서도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Q. 한 지붕 아래 있는 영어권 교회인 영생선교교회(ELMC)와 유일하게 조직화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는 위원회로 꼽히고 있는데?

A. 영생장학회 창립 당시부터 ELMC 소속 성도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특히 담임목사인 조성윤 목사는 담당

교역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난민 출신 학생에게 지급하는 소저너장학금의 경우 ELMC 성도들이 낸 기부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무늬만의 협력이 아닌 실질적인 협력이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Q. 현재 영생장학회의 재정 상태는 어떤가?

A. 총 50만달러의 기금으로 출범했지만 장학금 증액 및 신설 등으로 매년 지급되는 장학금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지금은 5만달러 정도 장학금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금이나 수익사업을 통해서 2만달러 가량 들어오기 때문에 1년에 약 3만달러의 적자를 보는 셈입니다. 따라서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장학기금은 한 30만달러 정도입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단순 계산으로도 10년 정도면 기금이 완전 고갈될 형편입니다.

Q. 그럼 영생장학회를 영속시키기 위한 자구책 마련은 하고 있나?

A.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있습니다. 소극책에서부터 적극책에 이르기까지 현재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지출하는 장학금을 들어오는 현금에 맞추는 방법, 특별 현금 등 현금 활성화 및 수익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재원을 적극적으로 끌어 모으는 방법 등을 우선 들 수 있습니다. 가령 얼마 전 승정옥 권사님께서 소천하시면서 목회자훈련원과 함께 영생장학회에도 1만달러를 기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하나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아야 할 때 유산의 일부를 우리 장학회에 현금하는 운동을 벌여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여겨집니다.

Q. 영생장학회의 궁극적인 비전은 무엇인가?

A. 영생장학회는 미래의 목회자와 선교사 양성에 주력하는 한편 신실한 기독교 학생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지도자 양성에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 대 1 멘토링' 프로그램을 함께 가동해 장학사업이 학생들에게 장학금만 지급하고 할 일 다했다는 일회성 행사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과 지속적인 관계가 이뤄지도록

장학생간 네트워크 형성에도 신경 써서 이들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Q. 지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용걸 원로목사께서 흔쾌히 전별금을 장학기금으로 내놓은 이유가 있나?

A. 이 원로목사님이 가난하게 자란 것은 성도라면 모두 알고 있듯이 이로 인해 학창 시절 고학을 하며 어렵게 학업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수업료가 없어서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고비마다 독지가들의 도움으로 학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다고 강대상 등에서 말씀하시곤 했죠. 이 때 받은 도움들을 되갚아야 하겠다는 심정으로 인해 장학회 설립에 애착을 보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영생장학회에 후원하고자 하는 성도들을 위해 안내를 한다면?

A. 교회에 마련된 장학회 현금봉투로 일반 현금과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고 크레디트 카드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성도들은 교회 홈페이지 현금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후원할 수 있습니다. 체크 (Payable to: YSPC Scholarship Foundation) 후원도 가능하며 영생장학회 홈페이지(www.yspcscholarship.org)에서 직접 후원할 수 있습니다. 후원자 명단은 후원자 검색창을 통하여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후원금은 세금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생장학회는 초대 위원장으로 김용찬 장로, 2대 위원장으로 장순영 장로, 3대 위원장으로 심수목 장로가 수고했다. ☎

영생장학회 장학금

영생장학회에는 다양한 종류의 장학금이 있다. 각 장학금의 신청 대상 및 지급 금액 등을 알아본다.

■ 웨스트민스터신학교 장학금

웨스트민스터신학교의 M.Div 재학생 혹은 입학 예정자 중 매년 신학교 자체에서 선정하는 두 명의 신학생에게 각각 2천 500달러(총 5천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 동부개혁신학교 장학금

동부개혁신학교의 목회학 석사과정 신학생 중 매년 신학교 자체에서 3명을 선발하여 각각 1천달러(총 3천달러)씩을 지급하고 있다.

■ 영생다음세대지도자장학금

한인 목회자 혹은 선교사의 자녀로 미주에 있는 정규 신학 대학원 M.Div 과정 풀타임 재학생 혹은 입학예정자 중에서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진취적이고 믿음이 돈독하고 성적이 우수한 10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매년 2천달러를 각각 지급하고 있다.

■ 영생일반장학금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진취적인 사고를 가진 발전 가능성이 충분한 인재를 발굴하여 장학금 및 멘토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매년 20명을 선발하여 1천달러씩의 장학금을 각각 지급하며 매년 재신청도 가능하다.

■ 디모데장학금

미국 내 정규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 예정인 한인 목회자 혹은 선교사 자녀로 학업 성적이 우수하며 독실한 믿음과 지도력을 가졌으나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매년 5명 정도를 선발하여 2천달러씩의 장학금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 매년 재신청도 가능하다.

■ 핫보로-호삼하이iskool 장학금

핫보로-호삼 하이iskool에 재학 중인 12학년 학생 중에서 믿음이 좋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모범적인 학생을 선정해 각 1천달러씩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학생은 핫보로-호삼 하이iskool에서 직접 선발하고 있다.

■ 소저너 장학금

Sojourner 장학금은 영생선교회(ELMC)의 기부자들에 의해 2019년에 설립됐으며 장학금은 법적 난민 신분을 가진 대학교 신입생 혹은 재학생에게 수여되고 있다. 수상자는 회중으로부터 지명된 명단을 바탕으로 ELMC 자비사역위원회에서 선정한다.

■ 지역사회특별장학금

지역사회에서 추천된 기독교 학생 중에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장학금이 필요한 학생을 약간 명 선발하여 각 1천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남성 중창팀, 찬양의 깊이를 더하다

최근 들어 영생장로교회에 남성 중창팀이 잇달아 생기면서 성도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며 창단한 솔루션 크리스투스 무명팀이 바로 주인공으로 이들 팀으로 인해 영생장로교회의 찬양의 깊이가 나날이 더해 가고 있다는 찬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하던 무렵 예배에서 찬양대의 존립이 위태로워져 찬양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들 팀에겐 오히려 창단의 씨앗을 뿌리게 되는 토대가 됐다. 이와 관련, 먼저 창단한 솔루션 크리스투스 소속의 심수목 장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제한된 숫자로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워 뜻있는 몇몇 찬양대원들이 팬데믹에 특화된 팀을 결성해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떻게든 아이디어가 나와 창단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 두 팀은 닳은 듯 닳지 않은 팀이다. 팀원 수가 같고 음악을 사랑한다는 점에서는 닳은 팀이지만 음악을 통해 주 예수를 찬양하는 방식에서는 닳지 않은 팀이다.

솔루스 크리스투스...오직 그리스도



심수목 장로를 비롯해 박혁진·채영중·임봉호·김형석 집사로 구성된 솔루스 크리스투스(Solus Christus)는 이름 그대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기 위해 2020년에 결성됐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 5대 강령 중 하나인 솔루스 크리스투스에서 차용했다. 심수목 장로가 대표 인터뷰를 했다.

Q. 창립 동기 및 배경은 무엇인가?

A.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극히 제한된 숫자만이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수의 인원으로 팀을 구성해 찬양을 드릴 필요성이 있다는 데 우리 모두 뜻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매주 주일 예배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Q. 팀 이름을 솔루스 크리스투스로 정한 이유는?

A. 팀 이름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는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면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뜻을 담은 솔루스 크리스투스로 팀 이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Q. 팀의 구성 멤버와 성격은 무엇인가?

A. 우리 팀원 모두는 찬양을 사랑해 찬양대 대원으로 섬기고 있기도 합니다. 저(심수목 장로)를 비롯해 박혁진·채영중·임봉호·김형석 집사로 이뤄진 5중창(Quintet)팀입니다. 여기다가 반주 및 '음악 코치'로 교수지 권사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Q. 데뷔하게 된 장소는 어디이며 곡목은 무엇인가?

A. 2020년 7월에 주일예배 헌금송 순서를 맡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라는 곡으로 첫 찬양을 드렸습니다. 발성 등 화려한 음악적 기교보다는 예수님이 기뻐하실 찬양을 드리자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찬양했던 기억이 3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새록새록 납니다.

Q. 현재 솔루스 크리스투스는 헌금송을 주로 하다 다양한 교회 행사에 특별 출연도 하는 등 활동 범위가 점차 넓어지는 것 같다. 향후 활동을 교회 외부로까지 넓힐 의향 있는지?

A. 솔루스 크리스투스는 기회가 될 때마다 교회 내에서 헌금송은 물론 특별예배·'영생 갓 텔런트' 등 각종 교회 행사에 가까이 참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교회에서 요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찬양드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팀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교회 내 행사 외에 외부 행사에는 참여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중창 팀 이름이 귀하니까요.

Q. 현재 대원 모두 전문 음악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룹을 이끄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A. 대원 중 그 누구도 음악 전공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창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하모니를 추구하는 데는 열성입니다. 이런 열성을 바탕으로 서로간의 신뢰가 구축되면서 앞으로 나아갈 원동력으로 삼고 있는 거죠. 우리 팀원 모두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고 각자가 서로의 동역자라고 믿고 있지요. 물론 오직 예수님을 찬양하겠다는 의지도 같고요.

Q. 멤버 각자의 역할이 있는지, 또 그룹 리더가 정해져 있는지?

A. 우리 팀에는 특별히 리더가 없고 중의를 모아 부를 곡을 정합니다. 각자 맡은 파트에서 최선을 다해 연습하고 미비한 부분은 서로 고쳐주며 즐겁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적 스킬 등은 반주를 맡아 수고하는 교수지 권사가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Q. 연습은 정기적으로 하는지, 그리고 주로 어디서 하는지?

A. 정기적 또는 조직적인 연습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팀의 찬양 드리는 목적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름다운 소리를 만드는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팀원 집을 돌아가면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의 찬양을 가장 예리하게 평가해 줄 수 있는 아내들이 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한다면?

A. 영생장로교회 안의 한 작은 모임이지만 그 작은 모임 안에서 오직 주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귀한 중창 팀으로 남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오직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찬양 소리가 널리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



박혁진 집사, 심수목 장로, 임봉호 집사, 채영중 집사, 김형석 집사(왼쪽부터)

무명팀...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겠다



5명의 집사들이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겠다' 는 각오로 뚝뚝 뭉쳐 하나의 근사한 중창팀을 만들었다. 의아하게도 이 팀은 이름이 없다. 과묵한 탓인지 모르지만 이름 없이 활동하는 중창팀은 이 팀이 미국 한인 교계 중창팀으로는 처음이지 싶다. 이름은 없지만 찬양만큼은 똑 부러지게 부르는 '무명팀' 을 이창호 집사를 통해 만나본다.

Q. 이름도 없이 팀을 창설한 이유는 무엇인가?

A.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찬양의 은사를 가진 남자 집사님들을 중심으로 찬양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난해 10월 무렵 팀을 꾸리게 됐습니다. 멤버 모두는 평소 찬양대에서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김성구·여영환·이승주·장건희 집사와 저(이창호 집사)가 멤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드러내기 보다는 찬양을 드높이자는 데 마음이 앞서 딱히 팀 이름을 지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기에는 굳이 팀명을 만

들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이 팀원들의 생각입니다.

Q. 멤버 구성은 어떻게 했나?

A.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할 때 대면 예배가 중단되는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서도 주일예배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휘자로, 대원으로 호산나 찬양대에서 수고했거나 오랫동안 다른 찬양팀에서 리더로 헌신했던 분으로 구성했습니다. 특히 감사하게도 김미영 집사가 우리 팀의 반주를 맡아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Q. 아무래도 각 찬양대 지휘를 맡고 있고 전문 음악인인 이창호 집사님이 창설을 주도했을 것 같은데 누가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서로 의기투합했던 원천은 무엇인가?

A. 글쎄. 누구 한사람이 주도했다기보다 이심전심으로 통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팬데믹이라는 '사선' 을 함께 넘으면서 생긴 '전우' 에 같은 것일까요. 다만 제가 "이런 은혜로운 찬양이 있는데 함께 드러보지 않겠느냐"고 권했더니 모두가 흔쾌히 동의하면서 뭉치게 된 것 같습니다.

Q. 아무래도 데뷔곡이라면 의미가 있을 텐데 데뷔곡은 무엇이

며 선정 이유는?

A. '베드로의 기도' 입니다.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죽을 수 있는 그 순간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모습에서 우리 역시 이와 다르지 않음을 고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Q. 연습은 어떻게 하나?

A. 1년에 두 차례 봉헌송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선 여러 곡을 놓고 멤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눈 후 최종적으로 부를 곡을 선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각자 맡은 파트는 스스로 불러보는 준비 과정을 거칩니다. 이후 본격적인 연습에 들어가면 기본적인 리듬, 음정, 박자 등을 맞추고 음악적 세밀한 부분을 다듬어 가는데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Q. 향후 활동 범위를 교회 밖으로 넓힐 계획도 갖고 있나?

A. 순수하게 교회 안에서만 찬양을 드리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돼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리가 있게 된다면 한번 시도는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성구 집사, 장건희 집사, 이창호 집사, 이승주 집사, 여영환 집사(왼쪽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이용걸 원로목사는 올 한해도 목회를 살리는 대장정에 나섰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워싱턴, LA, 하와이 등 미국뿐만 아니라 서울, 멕시코 등 해외에 이르기까지 간만의 빼곡한 선교 여정이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9월 일정이었다. 9월 한 달간 미국 하와이에서 서울에 이르기까지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해 가며 수차례에 걸친 목회자 세미나와 간증, 전도훈련, 찬양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부흥을 노래했다. 평소의 motto대로 이번 일정을 관통하는 주제는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였다.

9월 2~3일 하와이에서 열린 로고스장로교회 등 하와이노회 소속 교회들이 참가한 연합 집회에서 이용걸 원로목사는 말씀을 통해 "항상 임마누엘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며 "내가 행하지 못하면 강대상에서 전하지 말자"고 권면했다.

강준상 목사는 기도를 통해 "아무도 오기를 꺼리는 하와이까지 기꺼이 와서 성령 충만한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니 은혜 받고 담대히 목회 일선으로 나서자"고 기



“

강준상 목사는 기도를 통해 “아무도 오기를 꺼리는 하와이까지 기꺼이 와서 성령 충만한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니 은혜 받고 담대히 목회 일선으로 나서자”고 기도했다. 집회에 참석했던 한 성도는 “이용걸 목사님께서 성령이 가득한 말씀을 증거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많은 은혜를 받았다”며 기뻐했다.

”



도했다. 집회에 참석했던 한 성도는 “이용걸 목사님께서 성령이 가득한 말씀을 증거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많은 은혜를 받았다”며 기뻐했다.

이번 하와이 세미나에서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바울의 영성과 목회 철학 · 목회자의 위기관리’(이상 이용걸 원로목사), ‘평신도가 바라보는 목회자상’(박안수 장로) 등을 강의했다.

서울에서는 예정합동 평양제일노회와 통일소망선교회 등의 초청으로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했다. 9월 11일에 열린 평양제일노회 주최의 목회자 세미나에서 이 원로목사는 “목회의 모델은 바울서신에 다 있다”며 “성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적은 수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





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대로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승호·이성기 집사의 준비 찬양으로 영적 위밍업을 마친 목회 세미나는 이 원로목사의 40여년의 현장 목회에서 쌓은 체험적인 강의로 참가한 목회자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었고 세미나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목회자들이 목회자의 위기관리 등 다양한 방면의 질문을 쏟아냈다. "어려울 때 의논할 멘토가 없다"는 참석 목회자들은 "이런 프로그램이 계속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특히 이 원로목사가 미국에 오기 전에 시무했던 후암제일교회 부목사 출신인 최범규 목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가 되어야 하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해 준 특강이었다"고 말했다.

'전도왕' 이영희 전도사도 "생명을 살리는 사역의 실전이 들려질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을 전달 받는 느낌이 있었다"고 말했다.

9월 13일 통일소망선교회 주최로 열린 통일민(탈북민) 목회자 세미나는 목회자로서 기본적인 소양을 배울 수 있게



된 귀한 시간이었다. 이 원로목사의 '바울의 영성'과 '바울의 목회'를 필두로 우장환 장로의 '전도 특강', 박종현 장로의 '기도 간증', 김요셉 장로의 '새생명 전도', 박안수 장로의 '평신도가 본 목회자', 노한나 집사의 '전도 시범' 등

“

“어려울 때 의논할 멘토가 없다”는 참석 목회자들은 “이런 프로그램이 계속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특히 이 원로목사가 미국에 오기 전에 시무했던 후암제일교회 부목사 출신인 최범규 목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가 되어야 하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해 준 특강이었다”고 말했다.

”



의 특강이 연이어 이어졌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선교회를 연결시켜 주시고 귀한 통일민 목사들에게 이 목사님의 말씀과 강의를 통해 큰 은혜와 위로와 힘이 되었다”고 주최 측은 밝혔다.

통일소망선교회는 북한선교, 탈북민 영육구출양육사역, 탈북민 정착 사역 등을 펼치고 있다.

다민족 목회를 하는 A목사는 “암과 공황장애로 인한 어려움이 겹쳐 목회를 접으려고 하다가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힘과 용기를 얻어서 교회를 새롭게 일으키려고 한다”고 간증했다.

9월 17일 북경중앙교회에서 열린 주일 예배에서 이 원로목사의 설교 때는 말씀을 전할 때 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등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었다. 북경중앙교회는 조선족 동포교회로는 드물게 100여명이 출석하는 활력이 넘치는 교회로 알려졌다. “찬양팀, 찬양대, 친교팀 등 각자의 은사대로 섬기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교회였다”고 박안수 장로는 전했다.

예배 후 광고시간에 이 원로목사는 매고 있던 벡타이를 담임목사인 민건일 목사에게 전하면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자” 라고 할 때 성도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온 감동의 시간이었다. 이어 열린 목회자 세미나에서 이 원로목사는 바울의 영성과 심방 목회(찾아가는 목회)를 유독 강조했다. 마지막은 인천지역 글로벌 목회자 세미나로 이 자리에서 이 원로목사는 '바울의 영성과 목회철학'을 통해 40여년의 현장 목회 노하우를 전하는 은혜의 시간이었다.

한편 4월 12~19일 실시된 멕시코시티와 치아파스, 6월 27~29일의 도미니카 하이티에서의 원주민 목회자 세미나는 큰 은혜의 단비를 내리게 해 준 세미나였다. 위험하고 열악한 지역에서 목회하는 현지인 목회들과 우리 선교사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특히 한 현지인 목회는 목회가 너무 힘들어 목사를 그만두려던 차에 세미나에 참석한 후 이 원로목사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회개하며 다시 목회를 하기로 마음을 돌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났다고 함께 사역을 한 우정화 집사가 전했다. 

한결같은 하나님 사랑

전우성 형제

전 어려서부터 과학으로 세상을 이해했습니다. 인류는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고 믿었고 빅뱅으로 우주가 탄생했으며 인류가 알기로는 우주에서 지구 외에는 생명체가 발견된 바가 없습니다.

“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곳이지만 전 다른 곳에 목적을 두고 교회로 나왔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절 환영해 주시고 사랑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좋은 형제자매님들을 주시고 오해했던 질문들에 답해주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주님의 손을 뿌리치려해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다시 저를 주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주님을 만났던 영생장로교회에서 제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 받게 하셨습니다.

”

신의 존재도 그저 영화나 소설책에서 나오는 거짓인 줄 믿었습니다.

제가 열 살 때 저희 가족은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오랫동안

과학으로 세상을 이해했던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신다면 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실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세상에는 왜 고통이 있고 죄 없는 아기들은 왜 병에 걸려 죽으며 어째서 나쁜 사람들은 벌 받지 않는가?

이런 질문들이 제 마음을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전 이런 질문을 누구한테도 물어보지 않았지만 당시 어렸던 저는 종교란 모순덩어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 직장인으로서 3년 차 정도 되었을 무렵 전 다시 교회를 나왔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다른 한국인 친구들을 만들기 위해 교회를 찾았던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 지 한 달쯤 됐을 무렵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친구 만나러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곳입니다.”

이 말을 듣고 양심에 너무 찢렸습다. ‘하나님이 나보고 들으라고 하신 말씀인가’라는 생각과 함께 이전에 처음으로 교회를 왔을 때 들었던 의문점들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학생이었던 당시에 모순덩어리라고 넘겨졌었던 질문들을 하나하나 찾아보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물어볼 걸’ 하고

후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곳이지만 전 다른 곳에 목적을 두고 교회로 나왔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절 환영해 주시고 사랑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좋은 형제자매님들을 주시고 오해했던 질문들에 답해주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주님의 손을 뿌리치려해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다시 저를 주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주님을 만났던 영생장로교회에서 제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 받게 하셨습니다.

최근에 인터넷에서 ‘Painkiller’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미국에서 벌어진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은 피해자의 삶을 보여줍니다. 진통제에 중독된 피해자는 가족과 친구의 도움을 통해 진통제 사용 중단을 여러 번 시도하지만 매번 실패하고 패배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피해자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 사람을 포기합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홀로 남아 과다복용으로 생을 마무리합니다.

가끔 제 자신이 죄에 중독된 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고 다시 같은 죄를 짓고 또 회개하는 모습을 보며 제가 ‘Painkiller’에서 나오는 가망 없는 중독자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절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실패

하고 넘어지는 절 일으켜 세우시고 한결 같이, 끊임없이 사랑하십니다.

제 간증은 한 번의 엄청난 기적, 또는 오랜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

“

제 간증은 한 번의 엄청난 기적, 또는 오랜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 평생 보여주신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주셨습니다. 정말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이런 사랑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받은 만큼은 불가능할지라도 저 또한 주님을 한결같이 사랑하길 바랍니다.

”

평생 보여주신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주셨습니다. 정말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이런 사랑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받은 만큼은 불가능할지라도 저 또한 주님을 한결같이 사랑하길 바랍니다. 



예수 사랑 나누는 '예사초'

윤예린 자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행 3:6)

이 구절의 배경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중 구걸하는 앉은뱅이를 만나 그들이 가진 것을 그에게 나누어 주는 이야기이다. 그들은 금과 은 같은 일시적인 것들로 앉은뱅이를 도와주지 않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갖고 있는 최고의 것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다. 나 또한 돈, 명예, 부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지금 내게 있는 최고의 것을 친구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다. 그 분은 바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이시다.

새 학년이 시작되면서 내가 다니는 캐런대학

에 그 어떤 해보다 새로운 한국인 학생들이 많이 입학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한국 신입생들은 집과 가족을 떠나 혼자 미국으로 와서 공부하는 케이스가 많다.

그러므로 신입생들은 미국이라는 환경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쌓아가야 하는 상황이다. 같은 선배 유학생의 입장에서, 그리고 같은 길을 먼저 걸어 간 나로서는 새로운 신입생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어쩌면 세심히 알 것만 같았다.

더욱이 그들이 첫 번째 좋은 공동체를 만나 타국인 미국에서 생활을 잘 이어가고 즐겁게 생활하기를 바랐다. 나는 신입생들에게 좋은 공동체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우리 영생장로교회 청



년부 공동체로 그들을 초대할 좋은 기회를 만나게 된 것이다.

예수사랑초청잔치(예사초)는 영생 청년부의 공동체를 신입생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였다. 솔직히 평소에 나는 선뜻 다른 사람에게 먼저 이야기를 건네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타입은 아니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서 신입생들에게 예사초 초청장을 나눠주며 먼저 말을 건네고 우리 공동체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다. 신입생들도 흔쾌히 내가 건넨 초대장을 받았고 예사초 잔치를 기대하며 기다리게 되었다. 나 역시 일곱 명의 신입생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잔칫날을 기다렸다.

예사초 잔칫날, 드디어 다섯 명의 신입생들이 오게 되었다. 그 친구들에게 눈에 보이는 큰 것들을 주지는 못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즉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따뜻함을 느끼도록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했었다. 맛있는 음식과 재미있는 시간들이 흐르며 나와 그 친구들은 이곳에서도 따뜻함과 사랑을 느끼는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 친

신입생들은 미국이라는 환경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쌓아가야 하는 상황이다. 같은 선배 유학생의 입장에서, 그리고 같은 길을 먼저 걸어 간 나로서는 새로운 신입생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어쩌면 세심히 알 것만 같았다.

”

구들보다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것 같았다.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서 신입생들의 기뻐하는 얼굴을 보니 최고의 선물을 받고 있는 것 같았고 몇 년 전 처음 미국에 왔던 나의 모습이 오버랩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내가 받은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들이 잘 정착하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 자라가며 또 다른 통로가 되어 사용되어지기를 기도해야겠다. ✎



주님의 말씀이 있는 시간 ‘하이씨’

이중현 형제



하이씨(Hi-C)는 한어부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한어부 학생들에게는 학기가 시작한 뒤 교회에서 처음으로 하는 행사로 서로를 더욱 잘 알아가고 더욱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교회 다니지 않는 한인 친구들도 교회와 예배를 경험할 수 있고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으로 즐거움까지 챙길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이번 2023 하이씨는 무려 14번째 하이씨입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전통과 역사가 있는 행사인 하이씨는 한어부 학생들과 회장단 선생님들, 그밖에 헌신해주신 성도님들·선생님들·청

년부 형과 누나들의 많은 노력과 사랑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저는 이 하이씨의 준비과정부터 행사까지의 과정 중에 한어부 멤버들의 노력들과 저의 느낀 점에 대해서 나눠보려 합니다.

하이씨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정말 재미있겠다’ 였습니다. 이곳에 사는 형, 누나, 동생들과 함께 놀며 즐길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니 정말 기대되고 신이 났습니다. 난생 처음 추어보는 춤을 배우면서 살짝 걱정도 되었지만 형, 누나들의 따뜻한 격려와 사랑으로 걱



“

유학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유혹과 죄의 노출된 환경 속에서 이 하이씨를 기회로 친구들, 형들, 누나들, 동생들이 나의 반석이자, 요새이자, 나의 방패 되시는 주님을 만나 주님의 견고한 방패 뒤에서 달콤한 죄와 유혹들을 뿌리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게 기도하였습니다.

”

정 없이 따라갈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준비 기간 동안 항상 밝고 활기찬 에너지로 모두가 즐겁고 신나게 참여할 수 있게 한 어부 임원 누나들이 정말 많은 노력과 선생님들의 기도로 임했음이 보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노력들 덕분에 하이씨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으며 한 주, 한 주가 너무 소중하고 하루하루가 기대되는 날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원진뿐만 아니라 우리 한어부 멤버들도 각자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다 함께 서로서로 도우면서 하니 준비 과정 또한 흥겨운 나날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이씨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가장 큰 기도제목은 수월한 진행과 성공적인 행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하이씨라는 행사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 또

래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한 발자국 가까워지는 성령의 임재가 하이씨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이씨가 즐거운 놀이의 장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어부가 기도한 것은 이 하이씨가 단순한 놀이의 장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박히시고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했습니다. 유학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유혹과 죄의 노출된 환경 속에서 이 하이씨를 기회로 친구들, 형들, 누나들, 동생들이 나의 반석이자, 요새이자, 나의 방패 되시는 주님을 만나 주님의 견고한 방패 뒤에서 달콤한 죄와 유혹들을 뿌리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게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저희의 또 다른 바람은 교회를 딱딱하고 불편한 곳이 아니라 편하고 하나님을 찾고 궁금해 하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으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 대화를 하다보면 교회는 재미없고 지루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인 하는 사람들만 가는 곳으로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거기 가서 뭐 하나”부터 시작해 “내가 가봤자 방해만 되는 것 아니냐”, “교회는 맨날 똑같은 이야기만 해서 그냥 싫다” 등 교회로부터 상처가 있는 친구들까지 정말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하이씨로 하여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는 마태복음 19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교회는 하나님을 찾는 모두를 환영하며 어린 아이들이 뛰노는 푸른 들판 같이 즐겁고 재미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이씨가 시작되기 전부터 모두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 자기 그룹을 찾아

인사하고 간단한 자기소개를 한 뒤 이야기 중에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밝은 빛이 가득해'라는 찬양을 할 때에 모두가 같이 따라 부르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하나님도 기뻐 받아주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찬양에 이은 설교 시간에서 정승환 목사님의 설교는 하나님이 저희 한어부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반증으로 들렸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우리의 하이씨가 그냥 그저 그런 교회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형, 누나, 동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정승환 목사님이 몇 십 년 전에 미국에서 처음 예배를 드린 곳이 영생장로교회이고 이렇게 다시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게 된 것 같이, 이곳 하이씨에 온 형제자매들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 되어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기쁜 생각이 들었습

니다. 이러한 예배를 처음 접한 형, 누나, 동생들의 모습들은 정말 제각각이었습니다. 설교 중에 설교에 대한 생각에 잠겨있는 듯한 형, 누나들과 처음 접한 예배에 잘 참여하는 형, 누나들이 있는 반면 처음 경험해 보는 예배에 낯설어하는 친구들도 보였습니다.

이 예배에 대한 경험이 우리 형, 누나, 동생들에게 새 학기 처음 만난 친구 같은 경험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처음 만난 친구와 인사하고 이름만 소개하는 정도로 끝나지만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도 다음날 학교에 와서도 계속 생각나고 더 친해지고 싶어지는 그런 사람 같은 곳, 서로 알아갈수록 더욱 친밀해지는 새 학기에 만난 친구와 같은 곳인 교회를 처음 경험한 형, 누나, 동생들도 지금은 어색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 하이씨를 위해 정성 가득한 음식 조리를 위해 봉사해 주신 집사님들의 아름다운 헌신에 너무 감사드리고 음식 배식과 일렉트로닉 세팅 등등으로 수고해 주신 청년부 형, 누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이씨를 위해 열심히 준비한 한어부 형, 누나, 동생들 그리고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한어부를 물심양면 도와주시는 선생님들까지 모두가 수고한 만큼의 삶의 기쁨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그 외에도 게임을 같이 즐기며 열심히 참여해 준 영어부(?), 그리고 우리 하이씨를 찾아와 준 손님 한 분, 한 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 하이씨로 모두가 즐거운 시간 보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문의
총관 디렉터 - 김은영
718 682 9867
전통무용 디렉터 - 박선영
KCM 학부모 회장 - 민예진
모집 연령 K-12



카카오톡 오픈채팅
KCM group

KCM

한국선교무용
단원모집



미주 한인예수교장로회
영생장로교회
Yuong Sang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백운영



TEL. 215-542-0288 / FAX. 215-542-9037
www.yspc.org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